

동방의 교회

최근 한국의 영자신문 Korea Herald 에서 어떤분은 휴머니즘을 유일한 세계종교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기독교란 서방인의 신앙 즉 백인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하는 비평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은 공산주의자들이 반 기독교 선전을 할때 흔히 쓰는 상투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아시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신곳이 아세아의 서쪽 끝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곳도 아시아 지역이지 유럽땅은 아닌것입니다 기독교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아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옮겨졌으며 유럽에 첫 개척교회는 아시아의 선교사 바울에 의하여 빌립보에 설립이 되었든것입니다.

최초의 기독교 국가들은 아시아에 있었습니다 서방역사가들은 기독교를 첫번 공인한자는 「콘스 탄틴」황제가 개종을 한 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콘스 탄틴」황제보다 100년전에 아부갈이라고 하는 동방의 국왕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고 또한 그의 나라를 기독교국으로 만들었던것입니다.

로마제국 영토 밖의 아세아여러지역에서 기독교신앙이 초기에 어떻게 전파되어 나갔는가 하는 사실은 즉 동방교회사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또한 가장 등한시 되어 있는것중에 하나이지만 이 사실은 2천년 기독교 역사중 가장 흥미있는 페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박해에 가장 위대했던 순교의 역사들이 서방 로마 여러 황제치하에서가 아니고 동방과사 군왕들 치하에 아시아에서 이루어졌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의 시대는 「프렌시스 자비에르」하의 로마 카톨릭 시대도 아니였고 또한 「윌리엄케리」이후에 개신교시대도 아니였으며 그 시기는 바로 동방교회가 홍해로부터 아시아의 심장부를 거쳐 태평양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네스토리안들은 서방교회보다 6세기나 앞서 북음을 가지고 중국에 도착했으며 한 때는 중국인 교구장을 (카도릭)등용하기도 했습니다. 「네스토리안」 선교사들은 일찍이 7세기경에 중국에 도착했으며 14세기에 다

시 중국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당시 한국에도 들어왔던가에 관하여는 알지못합니다 한국에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1593년의 로마 천주교인들이었는지? 혹은 9세기 더 앞서 「네스토리안」기독교인들이었는지?의 의문에 대하여 이번학기 우리가 공부하는 동방교회사에서 우리에게 시원한 해답을 주지못할지라도 적어도 기독교 신앙이 아시아쪽으로 확대된데대한 극히 모호한 부분들일지라도 어떠한 빛을 던져주리라고 믿읍니다.

이 교회는 여러가지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때로는 서방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네스토리안」교회라고 불리워지는데 그것은 이 교회의 교리와 소위 이단이라고 불리웠던 5세기의 「안디옥」감독 「네스토리우스」와 혼동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교회는 아직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동방의 교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오늘날 아시아 여기저기에서 극히 소수의 신도들을 가지고 남아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가 결코 서방에만 속해있지 않다는 하나의 산증거가 되는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뱀된 교회는 사실은 서방교회임과 동시에 동방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스토리안」들을 경교라고 부읍니다.

우리는 동방교회와 동방정교회와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양자 다 동방이라고 불리우고는 있으나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두교파사이의 차이를 말한다면 동방정교회는 구 로마 제국 영토내에서 성장했던 동방교회들을 말하는 것이고 한편 「네스토리안」교회들은 (동방교회)로마 제국의 영토밖에서 발전하고 전파되었던 동방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교회는 실제로 약 8세기경까지도 로마 천주교와 분리되지 않았으며 또한 정식으로 분리된것은 1054년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일찍이 제5세기에 로마제국 교회들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당시는 카도릭과 정교회를 포함하여 말하였음)동방 정교회들은 대체로 「콘스탄티노플」주교의 권위를 인정하였던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랍 정교회라고 불리웠던것입니다 그러나 「네스토리안」교회들은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시리아 안디옥」주교에게 충성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시리아」교회라고도 불리웁니다.

한가지 더 말할 것은 동방교회는 상실된 점입니다 수세기전 한동안 「네스토리안」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활동할 때 아시아는 세계에서 첫째가는 기독교 대륙으로 손 꼽혔던것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적은 수의 기독교신자를 가진 대륙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인은 단지 3%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무엇이 어떻게 되였는가를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토록 강했던 선교열을 가졌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속히 또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는가 하는데 대하여 알길이 없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연구하는 공부에서 무엇이 그토록 교회를 재빨리 무너뜨려 버렸는가 하는 의문에 대하여 어떤 해답을 암시해 주리라고 믿읍니다.

1. 아시아에 있어서 초기 기독교의 확장

약 A. D. 100년경에 「안디옥」의 제2대 감독 「익나 티우스」는 "지구의 변두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감독들에게"라고 말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건구로 「익나티우스」감독이 뜻한 바를 명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제1세기말 직전까지 로마제국 영토 밖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기독교 사회가 있었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우리는 찾을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A. D 190년경에는 로마 국경 변방이나 혹은 그 변방 밖의 지역에 적어도 기독교 사회가 두개 지역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 1) 「에뎃사」와
- 2) 「메소포타미아」 하류에 있는 「티그리스강」지역의 (파사 제국)입니다

A. 「에뎃사」 교회

현재 위치로 「시리아」경계선을 지나 「터키」에 있는 Urfa이다 「에뎃사」는 로마와 「파사」 제국사이에 「시리아」 변방에 있

는 Osrboene 의 한 적은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A.D 216 년에 이르기까지 (그나라가 로마제국에 합병되어 있을지음) 그 나라는 자기민족에 국왕들에 의하여 통치되었으며 로마는 다만 우방국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초기 「에뎃사」 교회사에 대한 가장 좋은 참고자료는 단지 단편으로만 남아 있는 (Ca.160나서 A.D경에 죽다)입니다. 그러나 「에뎃사」의 기독교로의 전향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준 이는 체 4 세기의 「유세 비우스」 입니다 그런데 (유세비우스는 그도시 고 문서 보관소에서 이 문서를 발견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뎃사」의 교회에 대한 보다 더 중요한 참고자료는 A.D200 년경에 쓰여진 외경서인 도마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참고 자료에서 두가지 전설을 알 수 있습니다.

1. Abgar 전설

예수님 부활이후 「에뎃사」의 제 9대 왕 Abgar The Black 은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당신이 오셔서 나의 병을 고쳐 달라는 것과 모든 박해자들로부터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당시 에뎃사는 로마의 간섭을 받지않는 독립된 나라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답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답장의 내용인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신후 주님의 제자중 한사람을 보낼것이며 그가 왕의 병을 고칠 것이고 보다더 좋은 생의 길을 왕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게 할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라면 약속하신대로 사도 「도마」는 70 인중 한사람 「다데오」를 그에게 보내었으며 (눅 16.1-17) 그 사도는 왕의 병을 고쳐 주었고 백성들을 기독교에 개종시켰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확실히 청경이 아닌 외경에서 나온 이야기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Abgar 에게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생각되었던 편지가 「에뎃사」에서 수세기동안 보전되었고 또한 그 사본들은 악마를 몰아내는 부적으로 중세기에 이트도록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 전설에 대하여 이러한 점은 언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전설은 적어도 다음 네가지 점에 있어 확실성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에뎃사」의 Abgar 왕은 사실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 Abgar the Black 가 아니고 오히려 약 100 년후 A.D. 200 년경 통치하던 그의 후손으로서 제 9대 Abgar 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때는 콘스탄틴 황제의 개종 100년 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개종과 더불어 초기에 있어 세계 어디서나 기독교가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종교가 되었읍니다

2) 박해로부터 보호한다는 약속은 의심할 것도 없이 동방 교회의 발생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 대한 Abgar 왕의 약속은 단지 전해내려오는 전설이기는 하나 그 후 로마 황제들하의 박해 또는 로마 교회에 의한 이단자들의 박해 아래서 기독교인들은 사실상 동방에서의 피란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3) 「에뎃사」 선교의 창설자로서의 성「도마」에 대한 언급은 바울 사도가 유럽에 사도였던 것과 같이 「도마」는 어떤 모양으로였든지 아시아의 뛰어난 사도였다는 것은 그 초대시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대한 신빙성을 내포한 많은 언급들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시리아」 기독교의 최초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은 Diatessaron 의 저자로서 유명한 Tatian 이었으며 A.D. 155 년경에 「에뎃사」에서 태어났던 온화한 「노스틱」 주의자인 Bardesanes (혹은 Bardaisan)이었던 것입니다.

4) 「에뎃사」의 전체 왕국이 개종했다는 전설은 다소 파장이었을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에뎃사」는 인도나 중국에까지 전파된 선교사업을 위한 출발점이었으며 또한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에뎃사」야 말로 동방교회의 최초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에뎃사」는 「콘스탄틴」 이전에 있어서 어느 도시보다 더 많은 수의 기독교 인구를 가졌다 라고

「하나」은 알았습니다 「에벳사」를 출발점으로 하여 기독교회는
아시아를 건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확장 과정을 보면 다음
과 같습니다

- 1) 안디옥에서 「에벳사」로.
- 2) 「에벳사」에서 Arvela 와 Mesopotamia 로
- 3) 그리고 Arhela 에서 중앙 아시아로
- 4) 중앙아시아에서 중국 땅나라로
- 5) 8세기경엔 중국에서 한국으로

성 도마의 전설

성 바울이 서방교회의 사도 이었던 것처럼 성 도마는 동방교회의 사도 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역과 공적들은 사도행전에서 누가에 의하여, 교회들에게 보내는 바울 자신의 편지로 자세하고 명백하게 기록 되었으나 성 도마의 사역에 대하여는 믿을만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방교회와 그와의 관련, 또한 그의 선교사업에 관한 이야기에 대하여는 아직 전설로서 취급 되어야 하지만 그 전설은 그럴 듯한 사실로 널리 퍼진 것이므로 그 전설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어떠한 근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 도마의 사역에 대한 가장 최초의 기록은 외경서인 성 도마 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제 2 세기 후반에 나타났던 많은 작품중 하나로써 그 시기에 이러한 책들은 그당시 거의 우상과 같이 존경을 받던 사도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알고자 하는 대중의 갈망을 만족 시켰던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들 후기 행전들의 기자들은 누가와 같이 섬세한 역사가의 태도로 글을 쓴것이 아니고 공상적인 것들을 상상으로 쓰는 소설가의 태도로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확실히 초대 기독교인들의 기억에 보존되어 있는데, 틀림없이 믿을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줄 압니다.

사도행전들의 외경중 가장 중요한 네개를 아래와 같이 듭니다.

(1) 베드로 행전 : 이 책은 주로 로마에서 베드로와 요술사 시몬과의 충돌에 대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See Act 8: 9~24) 이 책에서 "Quo Vadis" 삽화에 나오는 베드로의 로마 탈출과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 바울 행전 : 이 책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을 자세히 설명하며 또한 역사적 사건일 것이라고 추측되는, 즉 다시 말하면 그의 생애가 마지막 순교로 끝났다는 기록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써 이 책은 단편들로만 남아 있습니다.

(3) 요한 행전 : 이 책은 일련의 기적들에 관한 이야기로써 어떤날 요한이 머물러 있는 여관에서 모든 빈대들을 여관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하고 다음날 아침 그 여관을 떠날때 모든 빈대들을 다시 들어오도록 명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H. Lietzmann—A History of the Early Church vol. II, P.83) 이 새 행전들은 비록 그것들이 조잡하고 믿기 어려운 기적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들은 적어도 교회 초기의 역사적 전통과 연관시키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Lietzmann, II, P.84)

(4) 도마 행전 : 이 책도 동일한 시대, 즉 A.D. 200년경에 아마 『에벳사』에서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측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네 행전중 가장 널리 알려졌으나 역사성은 가장 희박한 것입니다. 이 책은 주로 사도 도마의 인도 선교 여행에 관한 이야기로써 그 이야기 중에는 이상한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즉 개들이나 당나귀에게 이야기 하였다는 것과 심지어는 어떤 용에게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H. Lietzmann, II, P.85) 이 책은 제 4세기 초에는 교회에 의해 외경으로 단정 되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든것이 이 책에 대한 인기를 떨어트릴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역사성 비 역사성을 동시에 가지는 성 도마 행전의 문헌적 기초로 뿐만 아니라 제 3세기 초에 있어서 동방 『시리아』 기독교의 대체적인 성격에 대하여 믿을만하게 지시해 주는 것으로써 중요한 것입니다.

도마 행전은 복음 선교를 위해 세계에 흩어져 가려고 예루살렘에 모여든 모든 사도들로 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 지역은 성 도마에게 할당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토록 어

려운 과업을 자기가 맡을 수 없다고 느껴져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인도의 Gundapher왕은 목수 한명을 고용하기 위하여 사신으로 상인 한 사람을 시켰습니다. 그 사신이 마침 예루살렘을 통과하게 되었고 예수께서는 성 도마를 목수 노예로 그 사신에게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바닷길을 통하여 인도에 갔으며 왕에게서 궁전을 건축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가난한 백성들의 굶주린 참상을 보고 궁전 건축비를 받아서 빈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하는데 써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국왕은 매우 노하여 신축한 궁전을 곧 보이도록 명령 했습니다. 그 때 도마는 "왜하께서 승하 하실때 당신의 궁전을 보실 수 있을것입니다"고 대답 했습니다. 대단히 노하게 된 왕은 곧 그 사도를 처형 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왕의 형제 한 사람이 별세 하였는데 그의 영이 천국에서 한 궁전을 보았습니다. 천사들 말에 의하던 그 훌륭한 궁전은 기독교인 도마에 의해서 건축 된 왕의 궁전이라 했습니다. 그는 다시 지상으로 돌아왔으며 자기가 목격한 사실을 왕에게 고함으로 성 도마의 목숨은 구함을 받았고 그 후 국왕은 개심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말 한대로 이 전설과 같은 인도선교에 대한 그 환상적이면서도 세세한 이야기 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도마 행전이 『에벳사』 교회의 성격에 관하여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Findlay는 말하기를 "우리는 그 책에서 동방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과 윤리적인 요구들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가를 읽을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A. F. Findley, By ways in Early Christian Literature, Edinburgh, 1925, P. 279 ff.)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관찰에 이르게 합니다.

(1) 『에벳사』의 교회는 교리에 있어 정동적 이었습니다. 『에벳사』 교회는 "노스틱" 주의자의 마지막 사람"으로 불리웠던 Bardesanes 와의 관련으로 인하여 전 『에벳사』 교회는 이단적인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Bard

-oisan(Bardesanes) (b. 155 in Edesse, d. 222-3) 은 그의 반대자들이 말했 던 것과 같은 『노스틱』 주의자가 아니었으며(See art in wace and Piercy. Dict of Christian Biography, Lond, 1911) 그리고 도마 행전에 관하여는 극히 세밀한 가현실적인 흔적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의 인성의 완전한 실체에 대한 확실성이 약간 결핍) 『에벳샤』 교회는 성 육신의 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동적이며 또한 살아계신 부활의 주를 기탄없이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에벳샤』 교회의 세례 형식은 삼위일체 식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전에 가장 아름다운 부분중에 하나인 영혼의 찬송(Hymn of the soul) 에서 삼위일체 론적인 공식에 대하여는 하나의 이상한 동방의 다양성이 있음도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신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로써 생각 되었는데 그러한 관념은 초기 『시리아』 교회에서는 흔히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회람말은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Findlay, P.298. Burkitt, Early Eastern Christianity, P.88ff)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과 관계없이 『에벳샤』 교회와 서방 교회들 사이에 현저한 교리적인 차이는 없었던 것입니다.

(2) 동방 교회는 극도로 금욕적 이었습니다. 도마 행전에서는 사도 로마의 예를 통하여 초기 동방교회에 보급되었던 엄격한 자기부정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단식하고 단지 빵과 소금과 물만을 마신다" 그리고 그는 더울때나 추울때나 옷 하나만 걸쳤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나 자기가 가진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Chap 20.) 그 사도의 설교에서 가장 정상적인 인간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결혼은 마치 죄인것처럼 간주됩니다. (Ch, 15) 그 사도가 인도 황태자의 결혼 노래를 했는데 그 결혼 노래는 양자와 공주로 하여금 즐거운 결혼 생활의 기쁨을 포기하게 했으며 또한 하늘위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영원한 동정을 지켜 그들 자신을 성화 시키는데까지 이르게 했음

니다. (Chs 6, 7) 그 사도는 그 신랑 신부에게 아래와 같이 말
했습니다.

「만약 그대들이 순결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대들에게는 산
어린이들이 태어날 것이며 (즉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영혼들) 그대
들은 근심에서 놓여날 것이요 썩지않고 참된 결혼을 기대 하는중에
흔들림 없는 일생을 즐길 것이다. 또한 그대들은 영원과 광명한
빛으로 충만한 신방(신혼방)에 신랑 둘러리로 들어가게 될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Ch. 12, quoted by A. F. Findlay, op. cit. P. 283.)

도마 행전의 비 성서적이고 너무 지나친 금욕 주의적 강조는 그
책 자체보다 좀 더 오랜 동방 교회에서의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금욕 주의적인 수도원의 시초는 흔히 생각
하기를 『애을』가 성 『안토니』에게 추적되어 올라가지만 그 처음
본 교장은 아마도 『시리아』의 동방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시작되었
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다나 시우스』가 금욕주의의 창설자라고 불렀던 성 『안토니』는 약
A. D. 270년 경 이라고 생각되며 그의 나이 겨우 18세에 속세를 포
기 했었습니다. (『아다나 시우스』는 대략 A. D. 270년 경에 썼다)
사막의 고행주의자들은 "Eboratites" 라고 불리우는데 그 『시
리아』의 Eboratites는 약 100년 더 일찍이 별세 하였던 (C 180
A. D.) 『타티안』을 그들의 창설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아 사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기 부정에
대한 엄격한 교훈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는 최초의 참 『시리아』의 은거자(hermit)는 At
-ones 이었는데 그는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우물 옆 『하란』
가까이 있는 『에벳샤』의 동굴에서 야생동물 처럼 살았고 그의 유
일한 음식은 익히지 않은 날 풀이었습니다. (P. Carring

-ton, the Early Christian Church Cambridge 1957. vol. II.
P. 212: H. Lietzmann, OP, Cit, vol. lv. P)

또한 『시리아』의 수도 생활 풍습에 대한 언어학적인 증거가 즉 어떤 수도원의 대리에 해당하는 "Abbot"라는 이름은 "Abba"라는 『시리아』어 이고 애굽의 파생어가 아닙니다. (Lietzman, OP, Cit vol. lv. P. 163) 더우기 A. D 381 년에 『콘스탄티노플』에 수도원 운동을 인정하기를 꺼려했던 서방의 태도를 극복 하면서 첫 수도원을 건축했던 이는 Isaac 이라는 『시리아』의 한 승려였습니다. (Ibid., P. 174)

『시리아』 사막에 고독한 승려들은 그들의 애굽 동료들 보다 한층 더 열광적 이었으며 극단적 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큰 바위에 몸을 묶었으며 거대한 쇠봉치 아래 몸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깊은 동굴속에 스스로 갇혔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성자라기 보다 오히려 오늘날에 『힌두교』의 Fakirs 를 닮은 점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의 변방이나 『페르시아』 변방에 있는 시리아 의 일반인들에 의하여 널리 숭앙되었던 것입니다.

A. D 370년 까지 그 운동은 크게 확대되어 "Messalian"이라는 이름이 주어 졌는데 『시리아』말로 그 뜻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심지어 서방의 위대한 교부들, 즉 『제롬』이나 『크리소스토모스』와 같은 이들 까지도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롬』은 뒤로 물러가서 명상의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약 A. D 373년 경에 『시리아』의 사막에서 Messalian 고령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Duchesne, OP, Cit, vol, II, P. 379)

A. D. 약 340년 경에 방문할 목적으로 『메소포타미아』로 부터 『에뎃사』에 왔던 Aphraates (or Apheabat)의 긴 설교 (Homilies)는 고행의 교훈에 대하여 전형적인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의 생활은 신자와 마귀와의 투쟁이었습니다. 사탄을 정복하기 위하여 기독교인은 모든 유혹을 극복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현세의 모든 찬란하고 호화스러운 쾌락을 미끼로 하여 유혹해 올때 현명한 기독교인은 사탄을 향해 달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유혹에 복종하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사랑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홀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항상 사탄의 도구가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야 한다면 그는 세례 받기전에 결혼함으로써 세례의 불이 결혼의 죄를 씻어 버릴 수 있게될 것입니다. (Lietzmann, op. cit. vol II, P. 166 f.) 이러한 말들이 도마 행전에 자주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리아」의 고행주의는 지나치게 극단주의였으므로 그것은 가끔 반대작용의 결과를 가져 오기도 했던 것입니다. 「시리아」의 가장 위대한 성자로서는 「로마」의 「시리아」에 있었던 만광인성 Simeon Stylites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0세도 되기전에 허리에 튼튼한 쇠사슬을 둘러매고 몸을 괴물힘으로 피부가 벗겨지고 살이 터져서 피가 흐를때 까지 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년 간이나 은거 생활을 하면서 쉬거나 눕는일이 없이 언제나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가 AD. 459년 마지막 세상을 떠날때 까지 30년간을 높이 70 피트 기둥위에 2야야드도 못되는 「슬랫 롬」을 만들고 거기서 타는듯이 뜨겁게 내려 쬐이는 태양 아래 계속하여 기도 하면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당당시 서방교회는 "Messaliana"의 성악한 나머지 그것을 하나의 불법적인 이단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제 4세기 말 다격한 종파들을 황제들이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드디어 서방은 고행주의를 정규화 했는데 수도원 승녀들은 학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방교회의 고행주의 자들은 그 수가 너무 많아져서 마침내 강력한 세력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고행은 널리 행해졌으므로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방교회는 그들과 조건부의 협정을 통하여 화평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Lietzmann, P. 169) 그러므로 「시리아」 기독교회사에서 보면 교회의 성자들은 모두 성 시몬과 같이 독신으로 살며 동굴이나 뜨거운 햇볕에서 진신을 태우며 누추한 차림으로 고행을 했는데 그것은 불행하게도 그들이 복음을 복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 동방 교회의 유일한 사회적 관심은 자선이었습니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궁전 건축 자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도마의 이야기는 동방 교회가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책임성과 참다운 자비를 잘 분별하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이 점에서 동방교회는 2, 3, 세기에 서방교회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교회와는 달리 「파사」 제국의 교회는 하나의 작은 숫자의 운동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서방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교회이었을 때, 그 교회의 사회적 관심은 넓어졌으나 동방 교회의 사회적 관심은 가난한 자 구제에 대한 지나친 강조성과 결합한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흔히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대한 장된 기독교적인 사랑과 관심에서라기 보다 유언자는 말한다 하는 하늘의 보상을 기다린 내서기인 했던 것입니다. (Findlay, P.287)

(4) 동방 교회는 성례전적인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성례에 대한 강조는 구원의 필요 조건으로서 신앙의 중요성을 흐리게 했던 것입니다. 교행적 자기 부정과 자비로운 나눔에 자선은 속세에 있는 기독교 인으로서의 삶을 위한 요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이르는 길은 성례들을 통해서였습니다. 도마 행전에서 세례는 설교와 함께 신자 모집의 수단을 가져다 줍니다. 이 견해는 또한 서방교회의 일부에서도 광범위된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콘스 탄틴」 황제는 그의 죽음의 마지막 침대에 이르기까지 세례받는 것을 연기 했는데 그것은 맨 마지막 행동에서 전 생애의 죄를 없이 할 수 있고 죄없이 깨끗하게 천국에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마 행전에서 보여준 대로 동방교회의 성례전적인 의식은 두가지 의식으로 시작되었는데 즉 종유(Anointing)와 세례자의 세례였습니다. 종유라 함은 신체 각 부분에 기름을 바르는 것인데 그러한 행동은 미신을 좋아하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몸에 접한 악신을 몰아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세례식은 몸을 물에 잠

했으며 그 이전에 설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찬식(주님의 만찬)은 세례 다음 즉시 따르게 됩니다. 성찬식에 사용되는 술질로는 빵이었고 포도주는 사용되지 않았으며 물만 사용되었는데 (Ch. 121) 성의 사육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빵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수반됩니다.

“이 성찬이 당신의 구원과 기쁨과 그리고 당신의 영혼들의 고침을 위하여 있을지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Ch. 158. Quoted by Findlay, P. 291)

C. 동방의 신학교육

「에뎃사」의 진정한 영광은 Abgar 왕도 아니고 사도 도마도 아니었습니다. Abgar는 일부 전설이요 또한 도마의 「에뎃사」와의 관련은 외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동방교회의 생활가운데 「에뎃사」가 역사적으로 계속 중요하다는 근거는 「에뎃사」의 위대한 신학교였던 「에뎃사」의 학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학교는 가장 훌륭한 학교이기는 했으나 동방교회의 신학교중 제일 첫째로 설립된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1) 타티안의 「학교」

시리아의 신학자들 중 가장 초기의 학자는 A.D 약 11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어났던 「타티안」이었습니다. 이분은 스스로 성경을 읽어 개심 하였으며 그는 로마에 여행을 했는데 그곳에서 순교자 「저스틴」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구약성서를 오래된 고전성 때문에 크게 찬탄하였으며 그는 또한 구약성서에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의 해석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저작물은 상실 되었으나 그러나 그의 저서는 아마도 그를 첫번째 성서 주석가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는 또한 네 복음서들의 상호 조화를 처음으로 시도했던 그 유명한 Diatessmon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저스틴」이 죽은 이후 로마를 떠나게 되었으며 그는 그곳에서 「아레니우스」에 의하여 몇가지 이단적 경향에 대하여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에 대한 그의 encratic적인 거부 또한 하늘 위와 인간들의 생명들이 사는 별의 세력권에 있는 Aeons에 대한 「노스틱」적인 암시됨이 그것인 것입니다 (Wace und Piercy, op. Cit. "Tatianus") A.D 약 173년 경에 그는 그의 본토인 「메소포타미아」에 돌아왔으며 또한 지금은 Tigris의 동쪽이라고 생각되는 강들 사이에 그의 학교를 설립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학교이던 혹은 반 이단적인 분리교회이던 간에 그 영향력은 동방교회에 크게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상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고행주의 경향은 동방의 신학을 초 영성에 대한 흥분적이고 불안정한 동경으로 채색했으며 또한 messianic 운동에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한층 더 중요한 것은 이 학교는 서방 기독교 왕국을 산출시켰던 기독교의 헬라화에 대해 의식적인 단결의 특색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타티안」은 회람철학을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Carrington의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타티안」은 우리에게 「저스틴」이 잃어버린 한가지 점을 회상케 한다" 기독교는 유럽의 종교가 아니고 동양의 종교이다. 그는 기독교 헬라 주의자의 신학자가 아니라 기독교 「시리아」주의의 신학자가 되도록 운명 지으셨다. 그는 우리에게 「시리아」기독교가 존재했다는 것과 또한 「시리아」기독교는 로마왕에게 충성스럽고 헌신한 신하들이 아니었던 살아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2) 에뎃사의 "학교"

동방의 중요한 신학의 중심지이었던 동방교회의 훌륭한 학교는 「에뎃사」학교 였습니다.

이 학교는 「에뎃사」의 위대한 교사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중 한사람은 이단자로 의심을 받았던 Bardaisan이며 또 다른 한사람은 동방교회에 의하여 배출된 「카톨릭」교회의 유일한 학자로서 성 EPhrem박사였습니다. (D. Attwater the christian churches of the East, Lond 1961, vol2, P.170)

(A) Bardarsan (155~223 A.D) 「라틴어」로 Bardesanes 라 불리우는 그는 「에뎃사」에서 출생 했습니다. 그가 25세 되었을때 Addai (72 인중 1인) 가 건축했던 교회를 지나가게 되었으며 때마침 「에뎃사」감독의 성서 설교를 듣고 믿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세례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언급된 교회가 아마 이 교회일 것이고 (P. Cairington op. cit, vol2, P.151)

또한 「에뎃사」의 학교가 형성되었든 곳이 역시 이교회일 것이며 「에뎃사」학교의 처음 학자이고 기독교 철학자는 Bardesanes 였던 것입니다.

단 한가지 그가 초대교회에 의하여 산출된 가장 아름다운 문학의

단편이라 불리우는 도마행전에 있는 아름다운 영혼의 찬송(Hymn of the soul)의 저자가 아니라면 그의 저서는 아무것도 남아 있는게 없게됩니다. (Findlay oP, cit, P234) 우리는 그가 찬송가를 지어 가르쳤는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150개 시편"들은 「에벳사」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의 제자중 한사람인 빌립에 의해 쓰여진 저서 "Dialogue on Fate"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세계의 창조와 별들의 세력들에 관한 이상한 사상이 있다고 하여 「에벳사」의 다음 감독은 Bardesanes를 「노스틱」주의자라 생각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친분이 있을지 모르는 「타티안」처럼 「노스틱」이단들 보다 정통 기독교에 더욱 더 가까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가 믿는 기독교는 단순히 「시리아」적이었으며 희랍이나 혹은 로마적이 아니었습니다. (See Cairington, oP, cit P, 401 f. And Wace and Pierce oP, cit, "Bardesanes")

(B)EPhrem the Syrian(308~375) 「에벳사」학교의 진정한 창립자는 성 EPhrem이었으며 또한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 Bardesanes는 한 이단자였습니다. Bardesanes가 죽은뒤 3세대가 지난후에 성 EPhrem이 「에벳사」에 왔을때(C.340A.D) 사람들이 아직까지 Bardesanes의 아들이 "150개시편"들을 키타에 맞추어 조율했던 음곡을 가지고 노래하는것을 발견 했었습니다.

이 시편들 가운데서 발견된 이단성에 놀란 EPhrem은 이러한 이단적 찬송들에 대처하기 위하여서 일련의 정통적인 찬송들을 지었고 젊은 여성들로 합창단을 조직하여 찬송가 합창을 훈련 시킴으로 찬송을 부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기독교 교육을 위한 학교였음에 틀림 없었습니다.

EPhrem은 큰 축제일에 합창단을 동원하여 성대한 음악회를 개최 하였으며 전 도시의 모든 사람은 음악을 듣기 위하여 모여 왔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사람들은 곧 Bardesanes를 잊어버리게 되었든 것입니다. (Wace and Piercy oP, cit "EPhrem the Syrian")

EPhrem의 신학적인 저서들은 광범한 것으로 300만행 이상에

글을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 6 권으로 엮여진 그의 저서들은 아직도 남아 있는데 대부분이 설교들이고 그외에 성서 주석과 찬송들입니다. 그중 몇권의 책은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H. Burgess Select Metrical Hymns and Homilies of Ephrem Syrus (Lond, 1853, 2Vols; J. B. Morris Select Works of Ephrem Syrus (Oxford 1847); J. R. Harris, ed Fragments of S. Ephrem (Cambr U) 성서 해석에 대한 그의 방법은 「오리겐」의 비유적인 해석과 MoPsuetia의 Theodore의 문자적인 해석 방법에 중간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현대 성서해석과 비유함) 「오리겐」에 있어서 모든 성서의 구절은 세가지 의미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Theodore에 있어서는 단 하나의 의미만을 가집니다(문자적) 그런데 Ephrem 에게와 동방교회에 있어서 성서의 구절들은 두가지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있어 그 하나는 문자적인 해석 또 다른 하나는 주로 교회에 대하여 언급되는 영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에벳사」학교는 거의 6세기 초까지 동방교회에서 학문의 훌륭한 중심근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5세기에 거대한 「네스트리안」 논쟁에서 「에벳사」학교는 네스트리안 우편에 서있어 로마제국의 정죄 아래 있겠끔 되었습니다. 이 학교의 마지막 교장이었던 Barsumas(Barsauma 420~430)는 「에벳사」의 로마감독에 반대하여 「네스트리안」주의를 옹호했으며 그가 A.D약 450년경에 쫓겨났을때는 그 학교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을 이끌고 국경을 넘어 「에벳사」동쪽 150마일 떨어진 「파사」제국의 Mesibis에로 갔었습니다. 459년에 로마황제 Zeno는 정식으로 에벳사 학교를 철폐 시켰으며 또한 모든 실제적인 목적들을 위하여 동방교회는 로마 제국에서 생존 유지 하는것을 정치했던 것입니다 (See B. J. Kidd. A History of the church to AD. 461, Oxford 1922 vol, III. P. 271)

동방교회는 하나의 시리아의 교회로서 시작했으나 이제는 파사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벳사」교회의 이 언급에 대하여 하나의 역사적 주해가 첨부 되어야 하겠읍니다.

「에벳사」의 「네스토리안」들이 파사로 쫓겨 갔을지라도 그 도시는 오랫동안 로마와 서방에 충성하지 않고 남아 있었읍니다.

50년 후에 (A.D 541) Jacobus (or James) Baradae is는 반 로마적인 단성론 파에 의해서 「에벳사」의 감독으로 안수 받았던 것 입니다.

정통 로마 카톨릭은 「칼세돈」산조에서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서 두성품을 (신성과 인성) 가졌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단성론자들은 참 인격은 오직 한 성품만을 가질수 있다고 의의를 말했으며 그리스도의 진정한 성품은 신성이었고 그의 인성은 단지 외관적인 형태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Jacobus Baradaeus 아래 또 다른 동방교회가 「에벳사」를 기지로 하여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네스토리안」이 아니고 단성론자 (MonoPhy site)로서 었읍니다.

MonoPhy site는 Africa로 전파 되어져 나갔읍니다. Africa의 오늘날 그 교회는 「콤포트」교회라고 불리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시리아를 통하여 전파 되었는데 단성론의 가장 위대한 선교자이며 지도자인 「에벳사」의 감독 Jacobus Baredabus의 이름을 따라 Jacobite이라 불리웠읍니다. (See Wace and Piercy op cit. //Jacobus Baradaeus//)

그러나 파사의 국경을 넘어 아시아를 건너 퍼서 나가기 시작했던 종파는 처음 「에벳사」 기독교의 천달자인 동방의 네스토리안 교회이었던 것입니다.

B. 파사제국의 교회

1. Adiabene의 초기 앗시리아의 기독교 (100-226 A.D)
2. 배화교회 (Zoroastrianism)와의 대항 (226-340 A.D)
3. 박해의 시작 (340-380 A.D)
4. 교회의 재조직 (380-424 A.D)
5. 네스토리안의 논쟁 (424-451 A.D)
6. 네스토리우스부터 모하멧까지 (451-641 A.D)

로-마와 파사의 두제국 사이에 국경선 건너의 또 다른 변방에 적은 왕국 Adiabene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뎃사에 수도를 가진 Osrhoene는 로마에 흡수되었던 반면 Adiabene (앗시리아의 옛땅)는 드디어 파사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Adiabene의 수도 Arbela는 (현재는 Mosul 가까이 Irag 북쪽의 Erbil) "에뎃사" 동쪽으로 약 400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Arbela는 동방 기독교의 제2의 큰 중심지였습니다.

Arbela는 (Mingana이 말한대로) "중앙아시아"의 기독교 선교사 침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Arbela의 선교자들은 길도 없는 대륙의 심장부를 관동 행진했으며 중앙아시아에 있는 10개 원시인 종파 승려들의 강력한 세력에 도전하면서 서서히 행군하여 정복하며 전진했던 것입니다. 그 종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종파들은 Zoroastrianism의 군중파 "샤마니즘"의 마술사들이었습니다. (A Mingana, The Early Spread of Christianity in Central Asia and the Far East in John Rylands Bulletin, vol.9 No,2(1925) P.299)

1. Adiabene의 초기 "앗시리아"의 기독교

복음이 Arbela에 들어왔던 것은 아마 Edesse로부터였을것이나 우리는 그때를 자세히 알수 없습니다. Arbela의 첫째 감독 Pk-idha는 일찌기 제1세기 말에 안수를 받았던 것입니다.

(See A. Mingana's Translation of the History of 1-168)
 Mshiha — Zkna (fr. in German as chronik von Arbela) in Sources Syriaques 1908. i. 제5세기 까지는 Adiabene 즉, "앗시리아"의 거주민들의 대다수가 기독교인 이었습니다. (Sozomen, Ecclesiastical History, in Pat. Grace IXVII, 965 quoted by Mingana cP. Cit. P300)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들은 북쪽으로 "카스피" 해까지 또한 남쪽으로 "파사"만의 Bahrein 섬들에까지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EuPhrates 위에 있는 "안디옥"으로부터 Otesiphon의 "파사"의 사당에 이르는 큰 도로 위에 있는 Dura-Europas에서 이 교회들중 하나가 최근 발굴자들에 의하여 들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A.D 232년에 한 교회로서 사용되었으며 또한 이 교회는 세계에 잔존한 교회 건물중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에벳사" 교회는 더 초기의 것이지만 그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C. Hopkins and P.V.C. Baur, The Christian Church at Dura — Europas; Yale 1934)

파사 제국교회의 첫째 세기 (대략 Fro 100 A.D. to 226 A.D.)는 뚜렷이 알수 없으나 꾸준한 성장의 기간이었음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Parthian 왕들은 유약하였으며 희랍의 문화적 영향들을 관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희랍"의 문화적 범주 안에서 기독교를 세우려 했었습니다. A.D 225년 까지는 북 "메소포다미아"와 "파사"안에 20개 이상의 감독관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Mingane, Early Spread, oP. cit, P 298)

2. Sassanian 왕조 "파사"에서의 Zoraastrianism과의 대항 (226. —340 A.D)

A.D. 약 226.년경에 일어났던 하나의 혁명은 "파사"역사의 코스를 변경 시켰으며 또한 동방 기독교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파사"의 Parthian 왕조는 Sassanids라는 새로운 왕조에 의하여 무너졌습니다. 그 새 왕조는 그 이후 4세기동안 "파사" 제국을 다스렸던 강력한 군주의 계

열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pathian 군왕들이 반 로마적이며 친 "희랍"적인데 반하여 이 새로운 왕조는 "알렉산더"대왕의 정복 이래 500년간 "파사"문화의 일부가 되어온 "희랍"의 문화를 배격하고 동양적이며 민족적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파사"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 하는 것이 좋을듯 하여 잠깐 소개 하겠습니다.

- (1) Cyrus에 의하여 설립된 Achaemenid 왕조는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켰던 구약서 (Daniel, Esther) "파사"제국인 것입니다. 그 왕조의 확장과 번영은 유럽의 변두리에서 희랍인에게 의하여 저지되었고 (Battle of Marathon 490 B.C) 또한 그 왕조는 B.C. 331년에 Arbela의 전쟁에서 "알렉산더"대왕에 의하여 도리어 정복되었습니다.
- (2) "알렉산더"의 "희랍" 장군들에 의하여 설립된 The Seleucid 왕조 (331 - 150 B.C)는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한 "파사"를 Parthians에게 빼앗겼고 또한 "시리아"는 B.C 130년 경에 로마에게 빼앗겼습니다.
- (3) The Parthian 왕조 (150 B.C. to 226 A.D.)는 파사들 희랍의 Seleucid 황제들의 통치로부터 빼앗았으나 그들의 문화에 있어서는 계속하여 희랍화 되어가고 있었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목과 질서는 새로운 로마제국에 있었고 옛희랍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Parthian 왕들은 기독교인들을 관용 했습니다.
- (4) The Sassanid 왕조 (226 - 651 A.D)는 철저히 아시아 적이었고 희랍적이지 아니었습니다. 또 이 왕조는 계속 금까지 로마와 싸웠으나 마지막에는 모하멧 교도인 아랍인들에게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황제는 중국 황제의 도움을 호소했으나 결국 실패 했었습니다. (W. Langer, ed, An Encyclopedia of World History, Camb. Mass, 1940 P. 126) 동방교회가 모든 박해를 극복하고 파사에서 국가적 세력을 고수한 것은 이 왕조 아래에서 이었습니다.

Sassanid 왕조의 아시아적인 민족주의는 적극적인 양상과 소극적인 양상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왕조가 역사를 통하여 계속했던 반군사적 정치적인 로마정책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Sassanian 왕들은 그 제국의 국민정신 강화의 한 수단으로서 종교를 이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하여 Zoroastrianism (배화교)의 옛 파사종교를 부흥시켰던 것입니다.

Zoroaster는 B.C 약 660 년경에 태어났던 파사(Media)의 한 예언자였으며 그의 교훈들은 Zoroastrian의 성경 Avesta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신의 그 이상하고 또 이원론적인 종교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즉 불과 빛의 신 Mazda와 암흑의 신 Ahriman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신은 영원하며 광대무변한 투쟁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선은 악에 대항하여 선한 사람들은 Mazda를 따르며 불가운데서 그신을 예배하며 영생의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암흑의 신에 의하여 소유된 악한 인간들은 "거짓의 집" 안에서(The House of Lies)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W.F. Tomlin, The Great Philosophers; The Eastern World, N.Y. 1952, P.P 120 -137)

이 종교는 Achaemenid 왕조(550 - 331 B.C)의 공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대왕은 Zoroastrian의 제단들을 멸하였으며, 또한 그 희랍왕들의 Seleucid 왕조 하에서 Zoroastrian 이전에 더 오래된 파사의 종교들이 세력을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Sassanian 왕조의 파사왕들이 부흥시켰던 Zoroastrianism은 Zoroaster 종교를 기반으로 하여 원시적인 미신과 점성술과 그리고 널리 행하여진 미술 종교와를 혼합시켰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공적인 종교로서 Zoroastrianism은 곧 강력하게 조직되었습니다. 지역적으로 성화가 불타던 사원들은 마을 승려들에 의하여

관리 되었습니다.

그 승려들 위에는 각주에 대하여 권위를 가진 Mobeds 혹은 Magi라고도 불리우는 감독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때에 별을 따라 "베들레헴"에 갔던 동방의 세왕들은 아마 파사로부터 왔던 Zoroaster의 Magi들이었으리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Magi의 전국적인 조직장은 한사람의 Archimagus 혹은 Grand Mobed(일종의 Zoroastrian의 교왕 혹은 대주교)에 의하여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Sassanian 왕들 하에서 이 Archimagus는 그 제국의 가장 세력있는 사람들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동방에 있는 그 작은 교회가 직접적인 충돌 가운데서 그 자체를 발견하였던 것은 이 강력한 국가종교와 더불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기독교가 서방으로부터 들어왔고 그리고 Zoroastrianism이 가장 약했던 파사의 서쪽 "메소포타미아" 지방들에서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왕조의 첫 100년 동안은 Mobeds에 의하여 반대에 직면했을지라도 기독교는 그왕들에 의하여 박해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3. 박해의 시작 (340 - 380 A.D)

그러나 A.D 313년 로마에서 한가지 사건이 생겼는데 그 사건은 서방 교회에는 하나의 승리를 의미했으나 동방 교회에는 수난과 박해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로마황제 "콘스탄틴"은 관대한 포고를 하여 기독교를 그 제국의 공적으로 인정받는 종교로 만들었으며 또한 기독교는 로마에서 가장 혜택을 받는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가 한개의 기독교국이 되었을때 파사는 반대로 반 기독교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독교인들은 서방에서 박해를 받아왔고 또한 동에서는 관대한 대우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원수인 파사는 기독교 신앙을 로마제국 주의에 한개 가능한 도구로 큰 의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A.D 약 333 년경에 "콘스탄틴"은 파사의 왕 SaPer에게 (2세) 편지를 썼는데 내용은 그 파사국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부탁하는 편지였던 것입니다. (Eusebius, Life of Constantine, iv.13) 그의 의도는 의심할 여지없이 대단히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도리어 기독교인들은 친로마적이라고 생각하는 파사국왕의 의심을 확인 시키는데 불과했습니다. 파사기독교의 가장 초기에 문학적 문서들중에 하나는 A.D 337년에 있었던 Adiebene (Assyria)의 감독 APhraates 혹은 Jacob의 교훈들을 한데 묶어놓은 책인 것입니다.

파사의 통치 아래서 그 백성들의 상황을 이상하게도 무시하고 그는 로마가 파사를 넘어 드릴 것이라고 단언했던 것입니다.

2, 3 년후에 기독교인들이 파사정부에 의하여 박해를 받은일에 대하여 놀랄 필요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큰 박해는 A.D.340년에 시작되어 40년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그 지속 기간으로 보나 그 심한 정도로 보나 그리고 순교자의 수로 보아(그 수는 190,000명이었다고 함) 유래가 없었다 합니다" 그 박해는 서방 교회가 로마 황제들 통치에서 받았던 박해보다 더욱 심한 것이었다 합니다. 그러나 "그 변절자들의 숫자는 로마의 이교 황제들의 큰 박해때보다 적은수 였다고 합니다!" (L.C. Casar telli, "Sassanians" in Hastings,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 Vol xi, P.203)

그 박해는 교회들의 파괴 기독교인들의 재산 몰수로 시작 하였습니다. 감독들과 승려들이 체포 되었습니다. A.D.341년 성 금요일에 (예수님의 수난기념일) 첫 학살사건이 있었는데 그학살에 100명이 순교했으며 그중에는 그 제국의 수도인 SeleuciactesiPhon의 시몬 감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해 그 감독의 자매들은 여왕의 뱀에 병이나게 했다는 죄명으로 기소되어 뱀이 두토막에 찢리우는 악형을 받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왕은 자기에게 대한 기독교인의 저수를 깨끗이 없애야 한다고 기독교인들의 사지를 찢어 피를 흘리

는 악형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Duchesne, Early Hist. of the Church, Vol III P.383) 즉시로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Zoroastrian들은 기독교인들을 맹렬히 따라 다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다시 감독을 세우려 했으나 감독이 새로 선택되는 즉시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감독살해는 그로부터 5년후 기독교인들이 감독선택을 포기해 버릴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후 감독 자리는 20년간 비어 있었습니다. 그 공포의 정치는 A.D.379년 그왕(SaPer II)의 사망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4. 교회의 재조직 (380 — 424 A.D.)

A.D. 383년 SaPor III세의 즉위와 함께 기독교인의 박해가 끝났을때 동방교회는 재조직을 시작했습니다. 동방교회에 두개의 거대한 중심지는 가장 중요한 선교 중심지였던 북쪽에 있는 Arbela였고 또한 그제국에 겨울수도인 남쪽에 있는 Seleucia-Ctesiphon이었습니다. 이 둘다 예벳사로부터 북음화 되었던 곳입니다.

A.D.410년 Seleucid의 회의는 동방교회 첫 국가적 조직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 회의는 Seleucia — Ctesiphon 수도의 감독이 전 교회에 대한 우의성을 선포했었습니다. 그 회의는 다섯개의 큰 교구를(배사교구들)인정 했습니다. Adiabene(Assyria)를 위한 Arbela; 여름수도인 Susiana를 위한 Bei — LaPat(GundesPour); 로마변방을 위한 Nisibis; 강의 하류 지방을 위한 prat(Bassora); 그리고 Garamela를 위한 Beit — Selok(Kerkuk).

Seleucid의 이 파사회의가 서방교회에 의하여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중요한 것입니다. 서방교회는 한사람의 대표를 보내었으며 그 회의는 이단으로 생각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공식으로 니케아 신조를 채택 하였습니다.

동방교회가 항상 이단으로 정죄했던 "네스토리우스"는 그당시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의 안디옥에서 법률공부를 하고있던 18세의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파사정부가 이 회의에서 동방교회를 정식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Jazdgerd 1세 자신은 (d. 420 A.D) 로마황제 "콘스탄틴"이 85년 더 앞서 니케야 회의를 소집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 감독들을 함께 불렀던 것입니다. "콘스탄틴"과 마찬가지로 Jazdgerd는 종교관용의 칙령을 발표 하였습니다. 두황제 사이에 공통된 것이 기독교 세계에 서 주목되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그 파사왕이 기독교인이 되려고 한다고 소문이 떠돌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만 그 왕이 교회건물을 재건 하도록 했으며 동방교회의 새교구장인 (Catholicos) Seleucid Ctesiphon의 감독 Isaac을 접견토록 하락 하였습니다.

10년후에 제 2차 회의가 A.D. 420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방교회와 좀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려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같은해에 Jazdgerd 1세는 승하 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Bahram V세는 교회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많은수의 Zoroastrian들을 개종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그 왕의 마음에 기독교인들을 반대하는 결과를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있는 들을 격노케 했으며 2년동안 제 2의 큰 박해가 다시 교회를 휩쓸었고 (420 - 422 A.D.) 그 박해는 "콘스탄티노플"로 부터은 로마의 (Byzantine)의 군대에 의한 Bahram의 패배로 끝났던 것입니다.

제 3 회의는 박해가 끝나고 A.D. 422년 사이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교 Dadiso의 지도아래 그 회의는 동방교회로 부터 서방교회에 미쳐 교회적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 행동은 A.D. 422년 Byzantine의 승리 다음에 파사교회에 대한 "콘스탄티노플"의

세력을 강화하려는 "콘스탄티노플"에 의한 치열한 음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 졌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들은 그 결정을 보기 위하여 서방교회로 옮겨갈 필요가 없다"라고 공포 되었읍니다. 이로부터 교회의 가장 높은 권위는 Seleucia-CtesPhon의 감독인 그 교회의 파사 사교가 될 것입니다. (Duchesne III 389)

이리하여 마침내 동방의 감독이 명목상 안디옥의 사교에 종속함으로써 말미암아 300년 동안 동방교회가 서방교회에 속해있던 시대 즉 사도적이고 교회적인 관련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분리의 시작이었읍니다. 다음의 400년(424 - 640 A.D.)은 동방과 서방 사이에 갈라진 틈이 점차로 더 커져갔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세가지의 강한 세력들이었는데 그 첫째는 정치적인 것이었읍니다. 즉 로마와 파사와의 반목이었고 둘째는 교회제도에 관한 것이었는데 즉 파사교회 조직의 증대해가는 독립적 힘이었읍니다. 그리고 셋째는 신학적인 것이었는데 즉 "네스테리안" 논쟁이었읍니다.

5. 네스토리안 논쟁 (424 - 451 A.D.)

제 3 파사회의(422 - 424 A.D.)가 지나간 약 5년후에 동방교회는 서방교회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으며(i.e.in 427 A.D.) 안디옥으로 부터은 시리아의 한 승려인 학자 네스토리우스는 로마교황의 위치와 동등시 되는 "콘스탄티노플"의 총 사교로 선임 되었읍니다. 취임식에서 그는 로마황제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읍니다. "오! 황제여 모든 이단이 숙청된 한나라를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천국을 드리겠오!" (Wace and Pierce, op. cit. "Nestorius") 그러나 갑자기 사교가 된후 4년이 못되어 그는 Alexandria의 강한 대항자 Cyril이라는 또다른 총사교에 의하여 이단으로 비난을 받게된 자신을 발견케 되었던 것입니다.

위의 사건에 대한 신학적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즉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에 대하여 안디옥과 알렉산드리

아의 두 학파 사이에 있었던 제 5 세기의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쟁에는 하나의 정치적 배경도 숨어 있었습니다. 동방에 있어서의 교회조직의 최상의 권한을 위한 "콘스탄티노플" 과 "알렉산드리아" 주교들 사이에 있었던 적대시 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니케아신조 (in 325 A.D.)는 "그리스도는 두 인격 즉 하나님 또 인간이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두 인격 즉 하나님 또 인간이시다"라고 어떤 기독교인은 말합니다. 그러나 소위 정통파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인격이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일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두가지 성품론중 하나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시다 라는 말은 너무 강한 이중적 인격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Cyril 에 의하여 인도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 후자에 가까운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 학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약화시키고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학파의 주요 관심은 구속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신이된 그리스도만이 죄인을 구원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인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은 거의 보지못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학파는 꼭 그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고 그의 인성을 강조했습니다. 안디옥 학파들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동시에 윤리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안디옥 학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범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학파이던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 양자가 모두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만 그들 양쪽의 강조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안디옥 학파의 MoPsuestia의 Theodore와 그의 제자 Nestorius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MoPsuestia의 Theodore(350-428 A.D.)는 동방교회 신학의 아버지로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는 안디옥에서 출생했는데 그가 법학을 공부하기 원했으나 그 당시에 위대한 설교가였던 그의 친구 Chrysoston에 의하여 수도원에 들어가도록 권유를 받았습니다. A.D.392년에 그는 MoPsuestria의 감독이 되었고 그곳에서 36년간 교회를 다스렸습니다. 성서해석에 대한 그의 해석은 정확했으며 문자적 해석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특히 그는 오리겐의 공상적인 비유적 해석을 배척할뿐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성서 구절에 대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예인적이고 유형학적인 해석방법도 배척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율기서를 너무 극단적이라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편중 단지 4편의 시를 구세주로 붙여 드렸습니다. (Ps. 2, 8, 45, 100) 신학에 있어서 그는 Augustine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pelagian쪽에 치우쳤습니다. 그의 생각에 죄는 교질이라기 보다 하나의 연약성이라 했으며 보통 죄의 교리가 빈약할때 구원의 교리도 또한 빈약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토고스의 영원한 내주를 통하여 단지 하나님과 연속적으로 결합된 한 인간이었다" Theodore는 "Nestorius 이전의 한 Nestorian 주의자였다"라고 교회역사 학자 B.J. Kidd는 말했습니다. (A History of the Church to A.D.461. VOL III Oxford, 1922, P.P. 196 - 198 ff)

Theodore의 제자 Nestorius는 우리가 이미 언급한대로 처음에 안디옥의 감독으로 다음에는 "콘스탄티노플"에 주교로 그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갔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에 대한 안디옥파의 관심을 반영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처럼 보였던 Nestorius는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분리 되었다는 것을 주장 함으로서 인성의 완전성을 보전하려고 노력했던 결과 그리스도의 인격에 통일

성을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일반적으로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반대 했었습니다. (Theotokos-lit "God bearer") 그는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적으로 탄생하셨고 하나님으로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분만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불리워야 하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알렉산드리아 감독으로 있는 그의 반대자가 바라고 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Cyril은 Nestorius의 몰락을 추구하는 두가지 이유를 가졌는데 그 첫째는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제 4세기 말까지 Alexander는 기독교 세계에 있어서 로마 다음으로 거대한 관주였습니다. 그러나 제 2차 "에큐메니칼" 회의 (Constantinople 381 A.D)는 Constantinople의 감독이 Alexandria의 감독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감독의 순위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의 순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로마,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의 순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알렉산드리아의 Cyril은 Constantinople의 Nestorius를 대단히 질투하게끔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반목외에 또 하나의 신학적인 반목이 있었습니다. 즉 Nestorius는 알렉산더 학파에 대항하는 안디옥 신학파의 거장이었습니다. Nestorius가 동정녀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라고 널리 쓰여지는 용어를 비난했을때 Cyril은 재빠르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를 이단자로 몰아 기소했던 것입니다.

A.D.431년 에베소 회의는 네스토리우스와 씨릴을 정죄함으로 그 싸움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네스토리우스의 정죄는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라고 하는것을 거부하는 점이고 씨릴은 그리스도의 두가지 성품 즉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점을 지적하여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함을 받는 두사람의 처지는 각각 달랐습니다. Cyril은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반대자를 뇌물로

배수 하였습니다. 그는 황제의 고문인 Grand Chamberlain에게 (터키산 용단 4개, 색 무늬로 짠 용단 4개, 또 대로만든 장의자 6개, 마차 8채, 책상보 6개, 상아로 만든 장의자 4개, 그리고 타조 6을 주었으며 관공리들로 하여금 그 부패성을 지지토록 하기 위하여 알렉산드리아 교회는 거의 25만불을 부채로 가졌읍니다. (B.J.Kidd, op.cit P.258f)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소 기독교인의 태도를 가졌던 네스토리우스는 추방을 당하였으며 그러므로 그는 로마 박해의 순교자의 하나로서 "파사"교회의 한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팻사 학교는 그의 신학을 정통적인 것으로 옹호하였으며 또한 네스토리우스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옳았는지도 모릅니다. 네스토리우스는 1,500년동안 세상에서 이단자로 지목을 받았읍니다. 서방이 그를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당연한것 처럼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그의 Image는 거의 그의 반대자들에 의하여 주어진 Image인 것입니다. 그의 저서는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889년에 시리아의 한 승려는 "The Bazaar of hereclides of Damascus"라고 불려졌던 12세기쯤의 오래된 고서를 발견했읍니다. 그 문서를 연구한 결과 그것은 네스토리우스의 자서적인 저서이었으며 그 내용은 "네스토리안"적이 아니었고 그의 반대자들의 말보다 훨씬 더 정통적이었음이 밝혀졌읍니다. Bethuine - Baker는 Nestorius and His Teaching, A Fresh Examination of the Evidence. - Cambridge, 1908-에서 그는 이단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인성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했읍니다. 그러나 그의 반대자들은 말합니다. 네스토리우스는 그리스도를 두성품으로 분리시킴으로 그리스도는 머리를 둘 가진 기형적 피조물이 되어 버림으로 참다운 인격을 과멸시켜 버린다고 그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성품" (안디옥의 가르침)과 "두인격" 알렉산드리아가 안디옥의 이단을 설명할때 한 인격은 (Hypoastasis) 단지

한성품(Physis)만을 가질수 있다고 주장한것) 사이에 그 미묘한 차이는 추증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그의 남아있는 저서중에는 그가 이단이라든가 극단이라고 지적할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찾아볼수 없는 것입니다. (N.Sernov, Eastern Christianity, London 1961)

그러나 에벳사 학교가 네스토리우스를 옹호했을때 에벳사 학교는 로마에 의하여 이단이란 지목을 받았으며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A.D.489년 로마황제 Sens에 의하여 폐교 명령이 내려졌읍니다. 그러나 그 학교가 폐교되는 동시에 국경을 넘어 파사로 그 장소를 옮겼을 뿐이엇읍니다. 그때로부터 계속하여 파사 전 교회와 그 신학은 사실상으로 "니케아"적이며 정통적이었으나 서방에 의하여 네스토리안이라 불리웠던 것입니다.

네스토리안"이란 이름은 신학적으로 생각하여볼때 동방교회(파사교회)를 지시하는 말로서는 부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계속해 내려오는 전통이 되어버렸고 좀더 정확한 명칭들(Church of the East, The Oriental ch)을 쓰면 쓸수록 오히려 잘알지 못하게 되어 혼란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마음개 꺼림직함을 느끼지만 전통을 따라 네스토리안이라고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네스토리우스에 관하여 몇마디 더 하기로 하자면 그가 처음에 안디옥 바로 밖에있는 어떤 수도원에 추방을 당한 일이 있는데 (432 A.D.)그 수도원은 그 관구에서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위험을 느껴 Arabia의 Petra로 가도록 명령을 받았읍니다. 그러나 그는 옛날 적이었던 알렉산드리아 Cyril의 지역인 애굽으로 가게 되었읍니다. 그곳에서 그는 A.D.450년에 "The Treatise(or Bazaar)of Herecleides Damascus"를 썼고 그는 자기의 정당성이 일부 입증되었던 A.D.451년의 "칼세돈" 회의 직후 그곳에서 죽었읍니다.



6. 네스토리우스부터 모하멧 까지 (451-641 A.D.)

네스토리우스는 제4차 회의가 (Chalcedon, 451 A.D.) 그리스도께서는 두 성품 즉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라고 선포했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운명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교리에 대한 네스토리안 신학에 하나의 변명이 되기 때문 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 기독교의 발전을 재고해 본다면 첫번 열린 "에큐메니칼" 회의 (Nicaea, 325 A.D.) 는 "그리스도는 신이시다" 라고 선포되었다는것이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제2차 회의 (Constantinople) 는 "그리스도는 인간이다" 라는것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 (Ephesus, 431 A.D.) 는 이두개의 사실을 화합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지만 그는 한 인격을 가지셨다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신학적 입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사이에 좀더 명확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고 믿던 "네스토리안" 들은 제3차 "에큐메니칼 회의" 의 신조를 수락하는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4차 회의 (Chalcedon, 451 A.D.) 가 그리스도는 두 성품을 가지셨다는것을 선포했을때 "네스토리안" 들은 대단히 기뻐했던 것입니다. "칼세돈"의 전체적인 입장은 그리스도의 한 인격은 두성품 즉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인간이셨으며 또 참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개신교, 로마 카톨릭교, 그리고 동방정통 교회의 공적인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이 에베소 (431 A.D.) 와 "칼세돈" (451 A.D.) 의 신조들을 다받아 드리는 반면 동방교회는 에베소 회의에 대한 동방교회의 거부에 의하여 다른 기독교 왕국들과 신학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A). 신학적 분리 (451-490 A.D.)

동방과 서방의 신학적 분리에 있어서의 지도자는 (i.e. 로마제국의 교회들과 파사의) 에돔사 학교의 마지막 교장 Barsumas 혹은 Barsauma 있습니다. A.D. 약 450년경에 그가 네스토리우스에 대한 그의 동조로 인하여 박해를 받았을때 그는 자기의 대부분의 선생들과 학생들을 데리고 그 국경을 건너 파사로 갔었으며 그리고 Nisibis 에 한 피난처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그는 신학교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Barsumas 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분리를 강조하는 안디옥 학파의 네스토리안 신학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성분리론 (Diophysitism) 이라고 불리웁니다. (희랍어에서 부터 나온말로서 dio 는 둘을 의미하고 physis 는 성품 (nature) 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입장은 어느 정도 칼세돈 회의에 의하여 시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칼세돈은 항상 "두성품" (two natures) 이라는 귀절 외에 "한인격" (one person)이라는 다른 귀절이 첨부 되었습니다. 때때로 양성분리론은 그리스도의 인격의 통일성을 언급하는데 소홀했습니다.

한편 동방교회가 양성분리론 (Diophysitism)의 방향으로 움직여 가는 반면 로마제국의 교회들은 다른 방향 즉 단성론 (Monophysitism) (from mono, one; physis, nature) 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네스토리안 주의와 투쟁했으며 또한 그리스도는 오직 한성품만 가지신다고 주장하였던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칼세돈 회의의 받아 드리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전 교회는 네스토리안 주의로 가고 있다". 애굽과 Armenia와 시리아의 일부와 특히 에돏사 부근에 많은 감독들이 강력한 단성론자 (Monophysite) 였으며 또한 로마로부터 분리를 위협했던 것입니다. 이 분열을 막기 위하여 토마교황 자신이 잠시동안 단성론을 찬성하여 칼세돈의 신조와 화합하는 것을 동의했던 것입니다.

이 때에 Barsauma는 동방의 Diophysite 교회들 찬성하는 발언을 하여 파사교회는 서방 토마교회와 분리된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의 영향으로 동방 교회는 하나의 회의를 가졌으며 모호한 점이 없고 명백한 Diophysite신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친구 파사왕에게 이사실을 가져가서 로마의 적대자들로부터 파사교회가 독립한다는 또 하나의 입증을 삼았던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네스토리안 교회는 독립을 했던 것입니다. 카톨릭 풍습을 따르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는 그 동일한 회의는 성직자와 감독들에게 결혼에 자유를 허락했다는 점입니다. (Wace & Piercy, "Nestorian Church", p.751)

토마 제국을 생각해 보면 Monophysite 들과의 토마 카톨릭의 화해의 시도는 분리를 방지하는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애굽의 Monophysites 들 (지금은 Coptic 기독교인이라 불리운다), Armenia의 교회 그리고 시리아의 Monophysites 교회 (지금은 Jacobite 교회라 불리우는데 그교회의 조직자 에돏사의 감독 Jacob Baradaeus 의 이름을 본 딴 것이다) (d578) 등 이러한 교회들은 서방 카톨릭 관구로부터 절렬되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논쟁의 양면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분리 되었는데 ... 동방교회의 한편에는 Diophysite들이 있고 또 아프리카와 근동에 있는 다른편에는 Monophysite 들이 있습니다. 서방교회는 중간 위치에 남아 있으면서 그리스도는 "두성품" (two natures) 을 가지셨다는 Diophysite 들과의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리스도의 통일성을 주장하는 Monophysite 들은 만족시킬수가 없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 교회들은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B). 파사고 회에서의 분열들 (450-540 A.D.)

Barsuma 의 친구 파사왕 Piroz 가 A.D. 464년에 죽었을때 서방교회와의 관계는 잠시동안 개선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방교회의 내적 충돌과 분열에 의하여 다시 갈라졌었습니다. 내적반목과 파당은 50년동안 파사고 회를 진동시켰던 것입니다. 다시 통일을 시키는데는 하나의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그러한 지도자는 아마 동방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총사교 Mar Aba 였습니다.

(C). 부흥과 재일치 (540-549 A.D.)

Mar Aba 는 A.D.540년에 네스토리안 교회의 총사교로 선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겨우 9년간 다스렸는데 7년간을 옥중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그의 개혁과 부흥을 한층 더 훌륭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의 투옥이유는 Zoroastrian으로 성장한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Zoroastrian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파사제국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위법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었으나, Zoroastrian이 그 신앙을 포기하고 기독교인이 되는것은 금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Mar Aba 가 기독교신앙을 받아 들임으로서 적인이 되었으며, 당시 개종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Sassanian 왕조의 황금시기를 이루었던 훌륭한 황제 Chorsoes I 세 (531-579 A.D.) 의 친구였기 때문에 사형만은 면하여 생명은 구출되었으나 그이상의 사면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역경가운데 에서도 Mar Aba 는 동방교회의 총사교로서 교회부흥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업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혁 - 그는 교회 재관소를 설립하여 여러가지 불만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는 각 교구를 순회하며 즉결 재판을 실시하였습니다.

(2) 교육 - 그는 Nisibis에 있는 신학교외에 수도인 Selencia에도 신학교를 신설하였습니다.

(3) 부흥 - 그는 사막 승려들의 고행적이고 엄격한 생활방식을 회복하여 영적생활의 부흥을 옹호하였습니다. 그는 교회의 부패와 사치가 분열을 조장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4) 일치 - 그는 서방교회와의 관계를 재수립하였으며, 또한 A.D.544년경에는 칼세돈 회의에 대한 Nestorian의 공식적 승인을 하였습니다. (Wace & Pierce, op. cit. p. 751)

(D). 분열 (549-642 A.D.)

Sassanian제국의 마지막 100년은 서방교회로부터의 파사교회의 최종분리 기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에 대하여 교회를 단절시키는데는 탁월한 지도자의 역량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열의 방향으로 사태가 발전한데는 오히려 다른 환경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지도력만 있었다면 어느 정도의 정당한 관계를 보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같은 강력한 지도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방으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중의 동방사교는 세가지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정부에 아부하는 파토서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존경을 받을만한 명분을 찾는 일파로서 기독교인 이기는 하나 독실하다고는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셋째로는 엄격한 고행주의파로서 이들은 혁명하지가 않았다. (adapted from Wigan)

그 당시 파사제국의 교회는 침체상태에 있었습니다. 국경을 건너 중앙아세아에서는 파사교회가 터키인, 아랍인,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인 사이에서까지 거대한 선교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사제국내에서는 국왕이 교회를 해치지 못할 정도로 기독교인의 수가 많기는 하였으나, 권력자들을 개종시킬 정도로 강력하지는 못하였습니다. Chosroes 황제의 부인중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밖에 귀족이나 군인중에는 기독교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인과 농민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으며, 의사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법술가는 Zoroastrian 과 기독교인이 반반씩이었습니다.

교회내에서 성직자들은 결혼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감독들 간에서는 점차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A.D. 540년과 570년의 로마전쟁중 제국에 포토가 되어온 시리아의 Monophysite기독교인들과 파사의 Diophysite사이에 커다란 논쟁이 A.D. 612년경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마침내 Nestorian형태로서 파사교회의 신학으로 고정되었습니다. Nestorian 형태의 3대요점은 (1) "두 성품과 한 인격" 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의로서 정통적인 사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칼세돈 신조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한 인격과 한 성품"을 주장하는 Monophysite 신조에 정반대되는 입장이었습니다. (2) 동정녀 마리아에 대하여 "신의 어머니"라는 용어의 거절로서 이것은 비정통적이었습니다. Alexandria 학파에 대한 양보로서 칼세돈은 이 용어의 사용을 인정하였습니다. (3) "Nestorian" 이라는 별명을 승락하였습니다. 이는 Monophysite 가 파사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한 것

으로서 파사인들은 Nestorius 처럼 그리스도안에 두 성품을 강조하였으며, 또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로 부를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사인들은 Nestorius 를 이단으로 생각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친로마적"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우지 않기 위하여 결국 Nestorian이라는 별명을 승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Wace & Pierce, op. cit. p. 752)

A.D.621년 파사는 Chosroes 2세 영도하에 콘스탄티노플의 토마 황제로부터 세계지배의 패권을 탈취하는듯 하였으나 파사가 애굽과 소아시아를 점령한 후부터는 사태가 돌연히 악화되었습니다. 즉 처음에 토마의 Heraclius 황제가 메소포타미아로 진격하였고 (628 A.D.) 곧이어 아라비아 사막에서 일어난 Islam 이라고 하는 이상한 신흥종교를 가진 포악한 민족이 파사를 궤멸시키고 말았습니다.

A.D.640년부터 642년에 이르는 2년 동안 Islam 교도들은 파사의 강군을 섬멸하였고, 모하멜 교도들이 파사제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것이 제2의 알렉산더 정복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900년전 알렉산더대왕은 6년동안에 세계정세를 돌변시켰고, 서아세아를 억압화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하멜 교도들이 대정복 사업을 수행하였고 불과 2,3년내에 서아세아를 아랍화 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랍인들의 종교는 기독교도 아니며 Zoroastrian 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모하멜트였습니다. 따라서 Zoroastrian 과 끝까지 투쟁한 Nestorian 교회는 새로운 도전에 응하기 위하여 스스로 태세를 갖추어야 했던 것입니다.

Missions in Central Asia (196-781 A.D.)

C. 중아세아의 선교사업: 토이기의 개종 (196-781 A.D.)

파사제국이 아랍민족에게 멸망하기 전에 (632 A.D) 파사의 기독교는 국경을 초월한 강력한 선교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방교회에 의한 구라파 개종이라는 사실은 당시의 기준으로 볼때는 Nestorian 이 중앙아세아를 기독교적으로 점령하였다는 압도적인 사실에는 훨씬 미달하는 것이었으나 서방교회의 공적이 Nestorian 의 공적을 무색하게 한것은 Nestorian 선교사들이 결국 실패치 않으면 안되도록 한 역사적인 숙명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Nestorian 의 가장 큰 공적은 중국대륙에 기독교의 교두보를 확보하여둔데 있습니다.

이미 고찰한바와같이 아세아에 대한 선교확장의 중심지는 Acliabene (Assyria) 의 Arbela였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Nestorian이 최초로 복음을 전한곳은 토이기 입니다.

Bibliography: A. Mingana, The Early Spread of Christianity in the East.

John Foster: The Church of the Tang Dynasty.

- 개요.
1. 중앙아세아의 역사와 민족
 2. 기독교의 발상
 3. 선교방법과 공적

1. 중앙아세아의 역사와 민족

고대 아세아 중심지의 황량한 산하와 사막에는 유목민족 외에는 별로 살고 있지 않았으며 이러한 현상은 한국민족의 조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든중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이 민족들은 동으로 중국, 서로는 파사와 접촉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중앙아세아의 동부는 중국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아세아 서부의 역사는 혼란을 거듭하였습니다. 힘과 함께 파사의 세력하에 있던 지금의 Afghanistan 인 Bactria 와 오늘날의 Samarkand 지방인 Sogdiane 그리고 Bokhara 를 Alexander 가 점령하였고 그후 B.C.2세기에는 몽고족 (Scythian) 이 중앙아세아의 서부를 장악했습니다. 몽고족 다음에는 토이기의 여러종족인 Kushan 족 (100-450 A.D.) 과 Epthalite (white) 흉노족 (450-660 A.D.) 이 Arab 에 멸망될 때까지 이 지역을 통치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반대로 Arab 이 토이기에 의하여 정복되었고 토이기는 몽고의 징기스칸에 의하여 정복되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중앙아세아의 서부가 그 대부분이 소련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유목민족의 인종적 기원은 신비의 장막에 싸여 있습니다. 토이기의 전설가운데는 이들 종족의 시조가 늑대라고 하는것도 있으며, 또 다른 전설에 의하면 노아의 아들인 야벳의 장남이 민족의 조상이라고도 합니다. (Hastings, *Enc. of Religion and Ethics*, "Turks") 또한 여러종족과 부족간의 구별에 있어서도 혼돈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기본적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 토이기족으로 이 서북방의 야만족속을 중국에서는 흉노라고 불렀습니다. (나) 퉁구스 (Tungus)족으로 이 동북방의 야만족속을 중국에서는 "퉁퉁" (Tung-hung) 또는 글안, 만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몽고족으로 이들은 토이기족과 퉁구스족의 혼혈족속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들 세 족속을 때로는 Tartar족이라고 하며, 이는 서부 Tartar 는 토이기와 몽고족이고 동부 Tartar 는 글안과 만주족이기 때문입니다. 토이기족은 무수한 부족으로 세분되지만 그중 가장 세력이 강한 부족은 Epthalite (white) Huns, Uigars 그리고 Kirghiz 족입니다.

2. 기독교의 발상 (196-498 A.D.)

Mingana 의 연구에 의하면 (*Early Spread of Christianity in Asia*, p. 301) 중앙아세아에 있어서 기독교에 관한 Syria 의 최고 문헌은 A.D.196년경에 기술된 Edessa 의 Bardaisan으로 부터의 문구입니다. 이 문구는 Iran 의 Caspian 해 서남연안에 위치한 Gilan과 북 Afghanistan 지방인 Bactria내의 기독교인에 관한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 50년 후 (A.D.250) 기록된 다른 Syria 의 문헌인 사도교리 (The Doctrine of the Apostles) 에서도 Gilan 의 기독교인에 관한 언급을 하는 한편 "곡과 마곡" (Gog and Magog) 국가의 기독교인에 관하여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데 Syria의 문헌에서는 이말이 토이기와 Tartar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던 점으로 보아 이 문구는 Bactria 의 기독교에 관한 또 다른 언급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Bactria 가 토이기족 그 가운데서도 주도 Kushan 족 (Kushan 은 Bactria에 대한 Syria 의 다른 명칭이기도 하다) 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Bactria에 대한 중국명은 Yuehchi 입니다. (Ibid. p. 302)

5세기 말엽 (498 A.D.) 파사황제 Kawad 는 혁명으로 수도 Ctesiphon 에서 축출되어 Bactria 로 도망하였습니다. Kawad 황제가 피신한 Bactria 는 그로부터 약 50년전에 다갈은 토이기 족속인 Ephthalite (White) Huns가 Kushans Turks 에게서 빼앗은 곳이었습니다. 이들 White Huns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원조하여 주었습니다. 그후 Kawad 황제가 파사제국의 왕위에 복귀하자 Zoroastrian 이 자기들 반역한 반면 기독교인들은 망명중 자기들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황제는 파사의 Nestorian 교회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5세기말경 Bactria 의 토이기 (홍노) 족 가운데 상당수의 기독교인이 있었음을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기독교 신앙은 동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Mingana, op. cit. pp. 302-304, Chronique de Seert, in Patr. Orient, VII. 128

신앙전파의 동방경로로는 고대중국과의 비단통로 (Silk Road)가 이용되었습니다. 이길은 선교사의 통로였으며, 또 아세아에 있어서의 십자가의 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좁은 통로를 따라 북음은 중앙아세아의 광막한 불모지를 넘어갔습니다.

북음의 동방전파는 기독교인이라는 용어가 제일 먼저 생긴 안디옥에서 출발되었습니다. 로마제의 유리와 금, 그리고 귀중품을 실은 로마의 대상 (caravans) 은 안디옥을 출발하여 150마일 떨어진 파사의 Edessa (지금의 토이기 Urfa)로 통하는 간신토로를 따라 갔으며, 거기에서 다시 150마일 떨어진 Nisibis (지금의 토이기. Syria 국경의 Nuoybin)로 해서, Tigris 강을 건너 다시 동쪽으로 175마일 떨어진 고대 니느웨가 위치하였던 Arbela (지금의 Iraq 의 Erbil) 까지 전진하여 나아갔습니다. 이들 삼대 대상 도시는 Nestorian의 강력한 중심지였습니다.

Arbela 토 부터는 뜨거운 Mesopotamia 의 사막과 현재 Iran 이 차지하고 있는 파사고원지대를 거치는 Silk Road 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통로는 고대 Media 의 두 수도인 Ecbatana (오늘날의 Hamadan) 와 Rhagae (오늘날의 Teheran) 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거리는 Arbela 토 부터는 약 600마일, 안디옥으로 부터는 약 1,000마일이 되었습니다.

과사에서 다시 동쪽으로 계속된 이 통로는 유목민족의 초원지대를 거쳐 Bactria 와 그 수도인 지금의 Balkh 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로는 눈으로 덮인 Pamir 고원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며, Pamir 고원에서는 Gomedae (오늘날의 Kumedh) 산악지대의 험난한 암석에 얼음덮인 산길이 꾸불꾸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대파사제국과 중국변방이 교차하는 무인지대의 "석탑" (Stone Tower) 이라고 하는 곳에서 안디옥으로부터 약 2,300마일을 거처온 로마의 대상과 중국 중심부로부터 역시 2,300마일을 넘어온 중국의 대상이 서로 만나 로마의 금과 중국의 비단을 교역하였습니다. 이곳은 Roshan 과 Fergana 사이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원지대로서 이 두 지역이 오늘날은 전부 소련의 영토내에 있습니다. (Roshan 은 Uzbek 의 Tashkent 부근이며, Fergana 는 중공의 취서단 국경으로부터 약 100마일 떨어진 Tadzhik 에 있습니다.) (L. Halperin, The Lands Between The Roman Empire and China, in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1956, Vol Xii, pp. 96-99)

그러므로 Arbela나 Ctesiphon 에서 저쪽 땅끝까지 복음을 싣고 가기 위하여 대상을 따라 출발하여 긴 여행을 하고 나서는 돌아가는 중국대상들을 따라가도록 몽고의 길잡이들 설득하고 중국의 장안에 까지 이르는 황량한 사막을 돌파해야 되는 선교사들의 괴로운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석탑 (Stone Tower) 으로부터 중국으로 들어가는 도중에는 포악한 토이기와 몽고족속의 지역을 통과 하여야 하며, 로마사람들이 IssedonScythica (신강성의 Kashgor 나 Kucha 를 가리키는 듯함) 와 IssedonSerica(Lou-lan 또는 Kuchan 을 가리키는 듯함) 이라고 부른 도시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는 Tarim 강 연안에 있었으므로 이강이 Lop-nor 에서 뜨거운 사막의 모래토 말라버리기 전에 통과하여야만 했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황막한 불모지대이기 때문에 중공의 제일차 원자폭탄 실험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출발한 기독교 선교의 통로는 불교전도사들이 약 500년에 걸쳐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들어오던 옛도로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통로는 Uigur 족 지배하에 있었는데 선교사들은 이 Uigur 족에게도 그 목적을 성공리에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3. 선교방법과 성공 (498-781 A.D.)

비단통로를 따라가며 Nestorian 선교사들은 대초원의 유목민족과 쉽사리 없이 교대되는 마부 그리고 대파사제국과 중국의 변방에서 강도와 같이 설치는 사나운 무사들에게 끊임없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투사들이었으나 군대조직을 이룰 정도로 대집단화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피에 굶주린 토이기의 무사들 가운데에서도 Nestorian 의 온건한 기독교 정신에 감화되어 개종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Nestorian 의 선교방법에 관하여는 당시 Jacobite 기독교도가 555년에 쓴 것이 있습니다. 그는 A.D. 488년 Kawad 왕과 함께 Bactria 토 망명한 두명의 기독교인이 그곳에 30여년동안 머물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 까지 가지게 된 경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기독교인은 흉노족 (토이기족) 에게 전도하기 시작하였고, 토이기족 가운데 Byzantine Rome로부터 포도가 되어온 기독교인을 발견하고는 그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이들 두 선교사들은 평신도였으며, 한 사람은 제혁업자였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선교사에 가담했습니다. 즉 Karadusat 라고 하는 Arran 의 한 감독이 네명의 선교사 (missionary priests) 와 함께 도착하였던 것입니다. 이들 선교사들은 7년동안 토이기족을 개종시키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토이기족중에서 성직 안수까지 하였습니다. 이 선교사 일급사람은 일급 덩어리의 빵과 한항아리의 물을 일일 식량으로 하는 엄격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들의 전도사업에는 교육사업 까지 겸하였습니다. 그들은 흉노족이 언어를 쓸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Uigur 족과 같이 Tartar 족에게도 발음대로 쓰도록 표음화 시킨것은 Nestorian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몽고어와 만주어의 기원이 된 표기방법이였습니다. 다음에 이 선교사들은 채소재배와 옥수수 파종법을 토이기족 기독교인에게 가르친바 있는 Armenia 의 실송주의 감독과 합세하게 되었습니다. (Mingana, op. cit. p. 303f.)

그로부터 50년도 못되어 6세기 중엽에 이르자 (459 A.D.) 전도와 교육과 농업이 결합된 대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어 Bactria 의 흉노족 (이들은 Syria 명칭 Haphtray 를 본따 Hephthalite Huns, white Huns 또 토이기족 이라고도 하였음) 은 파사왕제와 네스토폴리아의 주교 Aba 1세에게 자기들의 독자적인 감독을 임명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Chosroes 황제는 야만족속인 흉노족 까지도 Nestorian 주교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사실에 놀라 그들의 요청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전달하기 위하여 Bactria 토부터 온 흉노족 선교사가 감독안수를 받고 최초의 토이기 감독이 되었습니다.

581년에는 흉노족 가운데 기독교인의 수가 대단히 증가하여 로마 (Byzantine Rome 즉 Greek Constantinople) 가 토이기와 전쟁중 토이기로 부터 잡혀온 포로 가운데는 이마위에 십자가의 문신을 가진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Mingana 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은 "토이기" 라고 하면 Moslem 과 사실상 동의어로 생각하고 있으나 토이기의 조상은 Mohammed 가 출생하기 이전에 열렬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기구한 운명이라고 하겠습니까. (Ibid. p. 301, 304f)

7세기 중엽 (644 A.D.) 부터 Arab 민족이 쇄퇴 일토에 있는 파사제국의 서남방을 휩쓸고 있던중 동북방에서는 토이기족 또는 흉노족의 대개종 사업이 선교사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었다. 토이기 부족의 여러주장들은 새로운 기독교 신앙을 받아 들였을 뿐만 아니라 부족 전부를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서기 781년에 그들에게는 토이기 대사교 (Archbishop) 가 있었습니다. 그해에 Nestorian 의 주교 (Patriarch) 인 Timothy 가 Syria 에 있는 기독교인 (Marenites) 에게 쓴 편지에 의하면 또 다른 주장하나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였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토이기의 주장 한명이 그 부족의 대부분을 데리고 일시적인 우상숭배를 떠다 기독교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부족을 위하여 대주교 (Metropolitan) 를 창설해 달라는 요청을 하여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라고 써어 있습니다. (Mingana, op. cit. p. 306)

중국 당시대의 Nestorian 교회

참고문헌. H.G. Moule, Christians in China Before the Year 1550 A.D.
John Foster, The Church of the T'ang Dynasty
P.Y. Saeki, The Nestorian Monument in China
Kim Kwang-Soo pp. 131-174

- 개요. 1. 중국에 대한 최초의 기독교 선교 (635-638 A.D.)
2. 중국교회의 성장 (638-683 A.D.)
3. 제1차 반대와 박해 (683-712 A.D.)
4. 부흥과 발전 (712-756 A.D.)
5. 전성기 (756-781 A.D.)
6. 중국 Nestorian 교회의 소멸 (781-987 A.D.)

1. 중국에 대한 최초의 기독교 선교 (635-638 A.D.)

중앙아세아의 토이기와 몽고 유목민족의 변경을 지나면 중국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서구의 기독교인은 해를 바다에서 떠올리는 지구 끝에 사는 중국 사람들에게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고 신비스러운 이야기와 전설을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설이 진실과 부합되는 것입니까? 과연 선교사들은 포악하고 호전적인 족속들의 포위를 뚫고 서방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중국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까? 또 선교사들은 세계에서 가장 황막한 중앙아세아의 사막과 험산준령을 돌파하였습니까?

16세기에 Jesuit 가 중국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Kaifeng 에 유대인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대중국내의 선교사에 관한 여러가지 보고는 오히려 소망적인 기원에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뒤 새로운 유물의 발견으로 중국의 기독교사는 극적인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1623년 옛날의 장안이 있던 Hsian 부근을 발굴하던중 노무자들이 높이 9피트에 나비가 3피트 3분의 1이 되는 커다란 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들은 까만 석 피석으로 되어 있었으며 중앙상부의 십자가 형상 밑에 아름다운 필체의 한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자는 "경고 Tach'in (Syrian) Luminous Religion) 중국전파기념비"라고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즉 Nestorian 선교사 Aplopen이 635년에 중국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A.D. 781년에 건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념비의 발견으로 극동지방의 기독교사는 천년을 소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념비에 관하여는 두후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기독교가 A.D. 635년에 중국에 도착하기전에 중앙아세아의 기독교사의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파사의 측면에서 서서 토이기 부족간의 기독교발전을 유의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아세아 중심부의 중국입장에 서서 기독교에 관한 연구를 하여 보십시오. (Foster, p. 12ff)

A.D. 450년경부터 흉노의 독립된 부족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한 토이기족은 Wei 왕국의 세력외장으로 Liang 으로부터 Kansu 지역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토이기족은 5백세대밖에 안되는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은 Jwen-Jwen 이라고 하는 혈연관계가 있는 흉노족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546년에는 토이기노예족이 그들의 지배자를 물리치고 자기들의 추장도 Khan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후 토이기족은 대륙의 심장부를 지배하고 East Tartar족은 만주로 내모는 동시에 Hephthalite Huns 도 제압하였습니다. 이때 토이기족이 흉노족 기독교인을 접하게 되고 토이기족 자신이 기독교로 전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이미 고찰하였습니다.

토이기족의 제4대 Khan 인 Shaporo 는 사막서부에 있는 토이기족에 대한 지배권을 중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그 답례로서 Shaporo 는 중국의 수나라 황제에게 공물을 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중국과 그동쪽에 있던 한국과의 관계와 같았습니다. 그뒤를 이은 제5대 Khan 인 Duli (d.599 A.D.)는 중국의 공주와 혼인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초원의 서쪽에 있던 서부 토이기족 (Western Turks)에 대립하고 있는 동부 토이기족만을 통치하였으며, 이나마 중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때 제6대 Khan 인 그의 아들 Sibir 는 만리장성으로부터 Karahodjo 에 이르는 지역을 통치하였습니다.

수는 A.D. 618년에 멸망하고 당나라가 그뒤를 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왕조를 수립하고 당의 첫 황제가 된 사람은 세력이 많고 명망이 높은 이연 (Li Yuan)이란 인물인데 그는 반 토이기족의 혈통을 이어 받았습니다. 즉 당의 고조가된 이연의 어머니는 토이기족 투가(Tu-Ka) 가문의 출신으로 Nestorian 기독교인 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이연이 수의 마지막 황제인 양제로부터 수도 장안을 탈취함에 있어서도 Sibir Khan 이 보내준 5천명의 토이기족 기병대의 원조에 힘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기에 동부 토이기족 (Eastern Turks) 은 끈연히 번철하여 수의 왕자와 군사들의 망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Shansi 지방의 국경을 침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D. 627년과 628년에 당의 태종은 서부토이기족과 합세하여 동부토이기족을 앞뒤에서 협공하여 그 세력을 완전히 말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영토를 정복하고 당의 국경을 Kansu 토로부터 토이기지대까지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토이기의 이라는 칭호까지 겸하여 칭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서방으로부터 장안의 황제 Khan 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하여 사절이 왔는데 기독교 선교사가 최초로 중국에 온것은 이 조공사절과 함께 왔다고 Foster 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Foster, p.17)

Foster 는 Alopen 이 Khotan 의 번방국가에서 온 조공사
 절과 함께 입국하였을 것이라는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A.D. 635
 년에 Samarkand 는 사자를 공물로 바쳤고 Kashgar 는 말을 보냈습
 니다. 그러나 Khotan 의 국왕은 "자기의 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그 왕자와 함께 Alopen 이 같이 오셨을지는 확실히 모르나
 만약에 그 선교사가 왕자와 수행하였더라면 아주 웅숭한 대접을
 받았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진술한 기념비에 의하면 "재상 Fang
 Hsuanling 이 서부교회까지 이들을 전송 수행하였다"고 기록되
 어 있습니다. (Foster; p. 22f)

당태종 (627-650) 따듯한 환영은 전혀 예기치 못하였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만일 선교사들이 그보다 앞서 중국에 입국
 하였더라면 추방을 당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태종의
 통치초기에는 외국 종교를 몹시 싫어 하였기 때문입니다. 당태종은
 순수한 중국 고유의 종교로서 유교만을 편애하였습니다. 불교도
 서방종교라는 이유로 당태종은 배척하였습니다. 당태종의 고문인
 Fu-lih 는 "석가도 서방출신입니다."라고 조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하여 "석가의 말은 해독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부터
 거리도 멀다. 게으른 부랑자들이 강제노역을 면탈하기 위하여
 포갈을 쓰고 다닙니다. ... 이들은 나라를 망칠것입니다."라고
 진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년뒤 631년에 당태종은 모든 종교
 에 관용적인 계몽주의 정책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631년에는
 "hsien" 이라는 종교를 수도 장안에서 포교하여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종교는 파사에서 전래한 마니교 (Zoroastrianism
 또는 Manichaeism) 이었을 것입니다. 그후 635년에는 기독교를
 받아 드렸으며, 3년뒤에는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칙령을 포교하였습니다.

이 종교의 자유라는 정책이 수립된 이유는 학문의 부흥에
 대한 황제의 진지한 관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태종은 당당한
 무사이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 애호가이기도 했습니다. 수도 장안의
 궁궐안에 지은 도서관은 20만권의 장서를 소장하였다고 하며 "고대
 세계의 최대 도서관의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또 대학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당태종은 유교경전을 연구하는 18
 명의 뛰어난 학자를 도서관에 두었습니다. 또한 당태종은 파사
 선교사가 도입한 새로운 신앙이 경전에 입각한 종교라는 사실을
 인식한뒤에는 여기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태종은 Alopen 사교 (Bishop) 를 귀빈으로 맞아들여 도서관에
 모신뒤 Alopen 이 가지고온 경전의 번역사업에 착수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이 중국에 대한 기독교 선교의 경하할만한
 출발이 되었습니다.

2. 중국교회의 성장 (638-663)

파사의 선교사를 위하여 중국에서 기독교교회가 최초로 건립된 것은 638년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21명의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모두가 파사인이었을 것이며, 또는 극소수가 중국인이었을지 모릅니다. 이교회 건립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 수도에 세울것을 황제 자신이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기널으로서 당태종의 초상화를 하사하였습니다.

1916년과 1922년 사이에 중국에서 발견된 중요한 문헌에 관하여 일본학자들은 Nestorian 의 초기 유물이라고 고증한바 있습니다. Saeki 와 Foster 에 의하면 이 문헌들은 639년과 641년 사이에 당태종의 대도서관에서 초기의 Nestorian 선교사들이 번역한 경전원본이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문헌에는 "641년(전)"의 메시아의 탄생일에 관한 언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초기의 Nestorian 선교사가 중국황제에게 자기들의 신앙을 어떻게 설명하였는가를 암시하는 중요한 문헌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Foster, pp.45ff)

- 1) 두번째의 논문으로서 단일성에 관한 고찰이었으며
- 2) 천국의 단일성에 관하여 일신교에 대한 한층 더 완전한 설명입니다.
- 3) 만유주의 사랑에 관하여 여기에는 산상설교등의 마태복음과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심, 승천, 오순절 그리고 로마와 파사를 통한 복음전파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4) 메시아 소개, 여기에서는 예수의 생애를 개설하고 있으나 그 서두는 인간의 타락과 우상숭배에 관한 기술로 시작되었으며 구약의 계명도 대강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에 없는 황제에 대한 충성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50년에 당태종이 승하자 그의 아들 고종이 되돌아왔다. 기념비에 의하면 고종도 부왕을 계승하여 "참된 종교에 대한 마지막 장식을 더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속하여 고종이 각현(prefecture)마다 "훌륭한 수도원"을 건립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바 이렇게 계산하면 358개의 수도원을 건립한 셈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도 경건하였던 고종에 대한 과장으로 생각됩니다. 남아있는 기록으로 보면 당시 9개의 교회를 건립한 것만은 확실하나 그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9개의 교회는 장안에 2개, Loyang, Chou-chin (장안으로부터 40마일 떨어진 곳으로서 유적이 발견되었음), Chengtu, Omei, Lingwu 그리고 다른 4개 입니다.

고종 재위기간중 Alopen 이 중국의 대사교 (Archbishop) 로 되었는데 이에는 파사주교 (Patriarch)의 동의가 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전술한 기념비에는 Alopen 이 "정신적인 대지도자" (Great spiritual lord guardian) 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써어있습니다.

그년대는 확실치 않으나 650년과 781년 사이일 것입니다.
 (650년 이후라는 것은 제1대주교 (Patriarch)인 Issho Yahb 3세가 "동방에" 20명의 사교 (Bishop)과 2명의 대사교 (archbishop)가 650년에 존재하였다고 언급하였는데 2명의 대사교란 Kashgar 와 Samarkand 를 지칭하였기 때문이며, 781년 이진이란 것은 그해에 Timothy 대주교가 중국에 대사교를 임명하였다고 언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Foster, p. 43)

3. 제1차 반대와 박해 (683-712)

한편에 보면 당고종이 기독교인에게 모든 친절을 다 베풀었으나 한편에 그는 기독교인에게 치명적인 무례를 감행하였습니다. 고종은 태종 승하후 불교 여승으로 은둔한 부왕의 후비 Wu Hou 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는 물론이요, 유교나 불교의 거론에서 본다 할지라도 하나의 죄악이며 고종은 그 죄값을 다 받았읍니다. 이 야심만만하고 강인하나 잔인한 Wu Hou 는 656년에 자기와 황제 사이에 태어난 왕자를 죽이고 그죄를 황후에게 씌워 폐비하여 버렸읍니다. 그리고 Wu Hou 가 그자리에 들어 앉았읍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황제와 동등한 통치권을 인정하여 줄것을 고종에게 강요하였읍니다. 683년에 고종이 승하하자 기독교의 성장은 끝나고 불교도 황후인 잔악한 Wu Hou 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Wu Hou 는 새로 황제가 된 자기의 아들을 퇴위시키고 권력을 직접 장악하여 새로운 왕조를 개척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커다란 세력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죄악에 가득차 불교승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여인은 불교에 광적인 열심을 바치고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개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과거 600여년간 고대 불교의 거점이었던 Loyang 의 수도원이 698년에 탈취되면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이 박해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지는 못하였으나 14년뒤에는 중국 최초의 교회인 수도 장안의 대 Nestorian 교회가 침입을 받아 파괴되었습니다.

4. 교회의 부흥 (712-758)

대장안 교회의 침입사건은 반기독교 박해의 단말마적인 박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박해를 조종하던 배후세력이 그 당시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80노령에 달한 잔악한 황후는 705년에 은퇴하였습니다. 그뒤 몇대의 괴뢰 황제를 거쳐 왕위는 강력하고, 또 당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위하였던 현종 (712-756)에게로 계승되었습니다. 현종의 재위기간은 기독교회의 부흥기간이었읍니다마는 당나라는 서방의 신흥 Arab 민족 때문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Arab민족은 632년에 파사를 식민하고 637년에는 수도를 점령하였습니다. 파사의 왕궁인 Ctesiphon 은 Balkh 로 망명하여 중국의 원조를 호소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살해되었습니다. 그뒤 그의 아들은 계속하여 동쪽으로 도주하여 마침내 677년 장안에서 망명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거기에서 죽자 중국에서는 그의 아들에게 "왕" (King of)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역시 707년 망명처에서 사망하고 이로서 Sassanid 왕조의 왕위가 절단되고 말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네스토리안들에게는 다행하게도 Kao Tsung 황제의 큰 적은 터키족과 한국민족이었고 아랍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Kao Tsung 황제는 Sasaanids 왕조의 최후의 왕에게 망명처를 제공하였으며 아랍민족과의 전쟁에 그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와같은 전쟁은 네스토리안들의 중국에 있어서의 선교와 페르시아에 있어서의 생활근거 사이에 있어서의 네스토리안들의 이중생활 노선을 절단하였습니다.

더구나 파사국을 정복한 아랍민족은 네스토리안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의 옛교회에 비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Arabian Nights (786-809)의 Haroun Al-Rashid 의 통치 때까지 아랍민족의 Mohammedan 들은 그들이 정복했던 나라에 있는 소수의 네스토리안들에 대하여 험저하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파사국에 있어서는 그나라의 국교라는 이유로서 Zoroastrianism 을 소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기독교인에 대하여서는 그들은 매우 관대하였습니다. 네스토리안의 죽장인 Ishoyabh 11세는 (628-643) Mohammed 스스로가 모든 기독교도들에 대한 안전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Stewart, p. 214, quoting Assemani, Bibliotheca Orientalis III. ii. p. 95) Mahammed 의 계승자 Omayyad Caliphs (661-750)는 네스토리안들에게 같은 종교적인 자유를 주었으며 또한 고위 행정적인 직분에도 폭을 넓혀 그들을 채용하였습니다. 아랍민족이 희랍 과학 문명을 네스토리안들에게서 많이 배웠으며 또한 이들에게서 배운 과학을 후일에 유럽에 전파하여 주었으며 그러한 동안에 고대 희랍문명의 유산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네스토리안들의 중국에 선교는 계속되었습니다. 사실상 어떤 역사가들은 아시아에 걸쳐있는 아랍제국의 확장은 실제적으로 네스토리안들의 선교활동을 자극했다고 말합니다. (H.C. Luke, Mosul and Minorities 를 보라)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아랍을 동반하는 네스토리안들의 선교 활동이 중국에 전파되었으며 또한 아랍해의 이익을 갖어왔으며 국동을 근거한 두역이 이루어졌으며 옛날 비단길 (Silk road) 의 어려움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아랍이 중국에 보냈던 사절단은 Kao Tsung (618-683) 때보다 한 일찍이 T'ang 라나 때에 도착하였습니다.

두번째 사절단은 713년에 왔으며 세번째 사절단들은 732년에 왔으며 이때에 네스토리안 주교인 Chi-lieh 가 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서는 네스토리안 기념패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랍국은 해설자나 충고자로서의 선교사를 채용함으로써 중국에서 네스토리안들의 체험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732년에 아랍세계가 스페인과 남프랑스에서부터 북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로마의 세력은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서 8세기의 세계에 있어서 거인 왕조는 아랍국과 중국이었습니다. 아랍국은 동쪽으로 그세력을 확장하였으며 중국은 서쪽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두나라의 황제는 충돌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741년에 아랍군들은 티베트를 향하여 동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아랍제국과 Tibet 는 중국을 치자는 동맹을 체결할 전망이 보였습니다. 이에 중국은 이 동맹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황제 Hsuan Tsung (712-756)은 그의 가장 위대한 장군인 Kao Hsien-Chih 라고 하는 한국사람을 보냈습니다. 아시아적인 역사의 가장 특수한 출정의 하나로서 중앙아시아의 사막을 지나고 험한산을 넘는 그의 군대의 행진이 있었습니다. 이때 Kao장군은 Kashgar로부터 Pamirs 와 Hindukush 를 가토질러서 Oxus 와 Indus 사이에 있는 군단에 이르기까지 이동하였습니다. 747년에 거기에서 Kao 장군은 두려웠던 동맹을 파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4년 후에 751년에 Ferghana 부근인 대륙의 심장이라고 하는 서쪽 산 Tales 에서 Kao 장군은 아랍군에 의하여 패배당하였습니다. E.O Reischauer 에 의하면 "이 전쟁은 비록 중국과 아랍국 세력권이 먼곳에서 싸웠다 할지라도 역사의 가장 운명적인 전장중의 하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같은 사실은 중국의 말단이 중앙아시아를 조정하고 있으며 5세기 초에는 전고했던 중국 군대의 쇠퇴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그사실은 아랍국이 중앙아시아를 정복하기 시작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영구히 Islam 으로 전환되어졌습니다."

(Reischauer and Fairbank, East Asia; The Great Tradition p. 190f.)

네스토리안 비명은 우리에게 이세대는 다른 어떤 교회도다도 그교회를 다시 부흥하는 세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Wo Hou 왕비의 박해로 인하여 협박당했던 그교회는 곧 생명과 활력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네스토리안 Tablet 는 714년 Canton 에 Chi-lieh 주교의 도장에 대하여 말하고 또한 많은 실패후에 732년에 수도에서 최후의 영접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는 귀빈이 입는 의복을 선물도 받았습니다. (Foster, p. 73)

Tablet 는 또한 네스토리안 교회의 회복에 대하여도 말하며 또한 왕조의 기쁨을 네스토리안에게 돌려준다는 표시으로서 교회에 황제의 초상화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선교사들이 744년에 도착하였으며 궁전에서 그들은 예배에 설교하도록 초청되었습니다. 그해에 기독교의 공식인 중국식 이름이 페르시안 정교 (The Persian religion) 로부터 시리아종교 (the Syrian religion) 로 바뀌어졌고 이와 같은 이름은 페르시안 종교가 (Zoroastrians) 조토아스타교와 마니교 (Manichaeism) 와의 혼동을 피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문,

"페르시안 성서교회는 Ta-Ch' in 에서 발전하였다. 설교와 실제 활동년에 의하여 오래전부터 중국 넓은 지역에 전파되었다. 처음부터 이교회는 수도원을 설립하였다. 사용되는 이름에 관하여서는 미래에 사람들에게 근원적인것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교훈을 알 수 있는것을 원하였다. 그 이름이 두곳 수도원에서는 "페르시아 수도원" 이라 칭 (Ta-Ch' in) 수도원이란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Foster, pp. 88, 89)

5. The Period of Greatest Influence (756-781)

756년에 Hsuan Tsung 제국의 한 Turkish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Changan 수도에 침입하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황제는 그의 사랑하는 후처 양케펠 (Yang Kwei-fel) 의 죽음으로 너무나 슬퍼하였기 때문에 싸우려는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의 왕자이신 Su Tsung 의 위토속에서 삶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장 Duke Kwoh Tzu-I 의 도움으로 적들을 방어하고 공격하기 위하여 삼군을 규합하였습니다. 이 삼군은 즉 외국 종교단체로서 이들이 8세기의 중국의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부디즘 (Buddhism) 으로서 이는 황제와 황제의 신하들의 종교이었으며 둘째는 이슬람교 (회교)로서 이는 우호의 표적으로 바그다드에 있는 Caliph 에 의하여 파견되었던 아랍군의 종교이었으며 셋째는 네스토리아 기독교로서 이는 몇년후에 Uigur 황제가 인정하였던 종교입니다. 아마도 이때 이들은 이미 호전적인 강한 종족이었으며 Manichaeism 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중국 네스토리아교회에 영향을 준 세 사람은

- 1) Duke Kwoh Tzu-I
- 2) Issu (or Yazdbozed)
- 3) Adam 으로서 그들은 네스토리아 경전에 모두 언급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Duke Kwoh Tzu-I

그 세대에 가장 유명한 장군이였으며 역사가들은 이물
진 중국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성격의 소유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J. Mac-Gowan, The Imperial History of China,
Shanghai, 1906, p. 325)

Su Tsung 황제 밑에서 그는 Lu-Shan 반란을 일으켰고 다음 황제
인 Tai Tsung 의 통치하에서 그는 티베트 종족으로부터 그의
국가를 구출하였으며 Uigurs 들의 폭동을 평정하였습니다. 그
의 이름만 듣고도 적은 멀리 도망하였으며 그리고 그는 85세의
고령으로 존경을 받으며 저세상으로 갔습니다. 이미 이때는
Teh-Tsung 의 통치시대였습니다. (네스토리아 Tablet 에는
Chien Chung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스토리아 교회는
강력한 군대의 지도자의 출현이 있는 몇년동안은 궁정에서 많은
총애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 자신이 기독교인이었는지는 확실
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소한 교회의 가장 우정깊은
친구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Foster 를 보면 p.80,97 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교회가 즐기는 것을 반대하는 철저한
군대의 상징입니다.

둘째로 네스토리아 교회에 영향을 준 사람은 Issu
목사로서 그는 Duke 장군의 가장 신임을 받았던 장교입니다.
그의 시리아 이름은 Yazdbozid 라고 알려져고 있습니다.
Tablet 에는 그에 관하여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Tablet 들 창시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궁전 문의
수비장, 북쪽 국경지대의 부수비대장, 또한 궁중의 시의로서
유명하며 Duke 장군에게 있어서는 없지 못할 심복이였으며 군대에
있어서는 눈과 귀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보다 중요
한 사실은 교회에 있어서는 그는 목사였으며 발크 (Balkh Afgh-
anistan) 에 있는 목사의 아들이였습니다. 에서 그는
주교의 보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
들에게 있어서도 그의 명성은 대단하였습니다. (See Saeki, pp.
63, 64; Foster, pp. 102-104) 그는 중국 당대에 있어서 교회
의 정치적인 보호를 담당하는 상징이였습니다.

그당시에 기독교인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던
셋째로 지명되는 인물은 Adam 이였습니다. Foster 씨가 Tablet
에 제명 (비문) 의 저자라고 주장함으로서 그는 잘 알려졌습
니다. 그의 중국이름은 Ching Ching 이였던 것같으며 그는
Issu 의 아들이였습니다. 그는 고전적인 학자였으며 통역인
이였으며 Tablet 이외에 또다른 작품을 내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그와같은 세작품은 Tun-huang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
가운데서 발견 되었습니다. 이들중에 가장 주목할만한 저서는
"삼위일체되신 구주의 찬양" (Hymn of the Saved to the Trinity)
과 중국어책을 시리아어로 번역한 것은 하늘에서는 영광 "Gloria
in Excelsis Deo" 이라는 저서입니다.

(Saeki, Cyriacus 주교를 찬양하는 것을 기술하였으며 그의 이름이 Tablet 에 Adam 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네스토리아 사람들은 아담을 기독교보다 불교적인 존재로서 평가하였습니다. 아담의 명성은 Prajna 라고 하는 India 로부터 온 불교선교사에게까지도 학자로서 그의 명성은 매우 유명합니다. Prajna 선교사는 불교도 수트라계급의 사람으로서 번역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786년에 중국에 온 사람입니다. 아담은 매우 관대하였으며 그는 그 번역사업에 동의하였습니다. (Foster p. 110f) 타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네스토리아인의 유연성은 혼합주의의 도전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Mohammed 들 기독교할때 도와준 네스토리아인 목사가 한국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것입니다. 네스토리아교가 혼합주의적인 종교이었던지 아니면 문화의 코-스틀 변경하는데 필요한 것이 없었던지간에 그 경전은 유교와 불교와 노자의 개념이 함께 혼합되어 있습니다.

6. 네스토리아인의 중국으로부터의 소멸

781년과 980년의 약 200년 동안에 네스토리아 교회는 차츰 차츰 중국으로부터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아랍 기록은 987년이라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Baghead 에 있는 기독교 회의 이면에서 나는 수도승이 있는것을 느꼈습니다. 그 수도승은 중국에서 궁중의 기독교적인 사건을 처리하려고 다섯명의 교직자와 더불어 추기경에 의하여 보내지기전 7년전에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중국에서 기독교가 두드러지게 유명하게 되었던 사실을 나에게 말해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도 멸망했습니다. 교회는 파괴되었으며 중국에는 기독교인은 한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Abulfaraq, quoted by Foster, p. 115)

중국으로부터 네스토리아교의 소멸의 증거는 그 시대로부터 Yuan 왕조에 이르기 까지 네스토리아인에 대하여 역사적인 기록이 중국에 언급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하여 확증되어졌습니다. 그렇게도 위대한 선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에서 무엇이 교회들을 전멸시켜 놓았는가?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대답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흡사한 대답을 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스토리아인들이 어떻게 국동의 역사에서 그렇게도 완전하게 소멸된 수가 있었는지 이제 이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1) Uigur 군대의 소멸과 정치적인 지반

Uigur 군대는 오늘날은 티베트의 북쪽 지방인 Sinkiang 의 거대한 평원과 사막지대를 수를잡는 강력한 터키족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Uigur 군대는 비단길을 통하여 중국으로 왕래하였습니다.

이 Uigur 군대는 T'ang 왕조의 기간이 되는 동맹군의 하나였으며 중국 황제의 Khan 공주들과 부인들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9세기에는 잔존한 종족인 Kirghiz Turks 의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832년에는 그들은 Uigur군을 멸망시키고 그들중에 살아남은 군들은 Shansi 로 흡수되었으며 또 다른 군대들은 Tarim 강 유역부근에서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잔존하였습니다. 그들이 신봉하는 주된 종교중에 하나가 Manichaeism (마니교) 이었습니다. 그들이 힘이 쇠잔하여진후에 당나라 황제에 의하여 이 마니교도 멸종하였습니다. Changan 에서 70명의 수녀들이 살해당했으며 사원은 불타버렸고 많은 종교서적이 소멸되었습니다. (Foster, p. 118f)

이 마니교의 박해와 파괴는 네스토리안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이때 또 다른 종교인 Persian religion (페르시아교) 가 중국사람들을 마니교와 조로아스터교와 더불어 혼동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810-820사이에 기록된 사원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원시적인 종교에 대하여 ... 마니교 (마니카이즘), Ta-Ch' in(기독교)와 Hsien (아마 조로아스터교) ... 이세 종교의 전 중국제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도원의 숫자는 조그만 도시 하나에서 불교의 승원을 찾는 것보다 많지가 않다. (Foster, p. 119)

(2) 반 불교도들의 반동과 박해

둘째번 째로 외국 종교에 대한 박해는 불교이었습니다. 당 황제의 세력이 기울어져가고 있는 때에 약한 황제의 숙기쉬운 미신적인 요소가 지성있는 유교학자들에게 혐오를 일으켜 주었습니다. (806-821) Hsien Tsung 황제가 부다의 손가락의 뼈라고 인정된것을 Changan 으로 갖어와서 이를 황제가 환영했을 때 유교학자들은 이를 공공연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유교학자들은 또한 848년에 거대한 반 불교주의자들 박해운동을 하는 Taoist 들과 합세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20년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후 황제의 포고령에 의하여 44,600곳의 승원과 은자의 집이 폐쇄되었으며, 혹은 파괴되었습니다. 특별히 훌륭한 사원은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358개의 혐에 각각 한곳만을 남겨 놓았습니다. 많은 종들은 녹여서 화폐를 만들도록 명령하였으며 중요한 그림들은 국보를 만들어 버렸으며 260,500승려와 비구니들은 생산적인 작업체에 종사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불교는 이 박해가 있는 이후에는 중국에서 다시는 회복되어 질 수가 없었습니다. (Foster, pp. 121-125)

같은 포고령이 보다 적은 외국 종교인 기독교와 조로아스터교와 같이 취급되도록 명하였습니다. "Ta-Ch' in과 Muh-hu에 대한 예배형식으로서 이미 불교가 추방되어 졌기 때문에 이들 이교도들의 예배형식이 인정해서는 안되며 사람들은 그들이 세계로 돌아가게 되어자기를, 더본어 반하여 남색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 11 —

외국 자립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읍니다." (Ibid. p. 123) 이 포고령은 3,000명도 넘는 기독교인과 조로아스터교의 승려들을 세계 각지로 돌아가게 하였읍니다. 만일 불교가 옛날처럼 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밖에 이 후부터는 전혀 회복할 수가 없었읍니다. 또한 이 사건은 적은 기독교인 그들을 무능하게 만들고 말았읍니다. 847년에 새로운 관용서가 반포되어졌을 때는 이미 때가 늦었읍니다. 네스토리야교 선교사들은 이미 거의 가버렸고 혹은 추방해 버렸읍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거의 시골로 흩어져 버렸으며 생활에 애쓰고 있었읍니다.

(3) 당 왕조의 몰락

이때에 페르시아로부터 새로운 지도력이 네스토리야교의 남은 사람들을 다시 불러 일으킬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당 왕조의 사후와 907년에 당 왕조가 몰락했기 때문에 서방국의 정보노선이 폐쇄되어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860년에서 960년까지는 중국의 전 제국이 혼란속에 잠겨있었읍니다. 많은 도시 이곳 저곳에서 외국 종교가들에게 무참히도 잔인했던 반역자들에게 몰락했읍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878년에 몰락했던 Canton (광둥)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랍 여행자가 기록한것을 보면 모스렘교도와 유대교인과 기독교인과 조로아스터교인이 120,000명이 학살당했다고 한다. (Foster p. 130, Abu Zeid 에서 인용)

(4) 내적 부패와 혼합주의

네스토리야교의 소멸에 대한 주된 요인으로서 흔히 인용되어지는 궁극적인 요소는 그종교 자체내의 내적인 허약함이었읍니다. 우리는 이미 동양 종교와의 혼합적인 타협에 대한 증거를 언급하였읍니다. 유명한 옥스포드의 학자이신 James Legge 씨는 중국에 있어서 네스토리야교는 "유교와 도교, 그리고 불교의 사상에 의하여 곤궁에 빠뜨려 졌으며 어떤 퇴폐적인 요소와 이름 뿐인 기독교"라고 단호히 비난하였읍니다. (Foster, p.112 에서 인용) 네스토리야교의 경전의 기록에 쓰여진 것처럼 신앙에 대한 기술이 어떤 신학적 성질의 참고라고 한다면 Legge's 교수의 난해한 용어들은 생각해 볼만한 명분이 서는 변명입니다. 이미 처음 몇문장에서 사상의 애매성과 비기독교의 개념의 동화에 대한것을 말하였읍니다. 이제 우리는 Saeki의 번역에서 인용합니다. "중기 왕국에 찬란한 종교의 전과를 기념하는 찬사는 서툰과 함께 Ta-Ch' in 수도원의 목사인 Ching-Ching 목사이며 Chore episcopos 인 아담과 중국의 황제에 의하여 찬사가 지어졌읍니다." "보다 진실하고 확고한 자가 있습니다. 창조되지 아니한 존재이시며 이는 근원중의 근본이십니다. 이해할 수도 없으며 눈으로 볼 수도 없으신 분이여, 영원무궁

도록 영원히 신비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근원적인 비밀을
 간직하신 분이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분이시며, 거룩한 분이며, 우주 가운데서 다만 창조되지
 아니한 주이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Aloha 입니까? 삼위일체
 입니까? 신비로운 사람입니까? 낱음을 받지 아니한 참된 주
 이십니까?" (창조에 관하여) "그는 십자가를 분석하면서 네
 가지 기본적인 요점을 결정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영의 운동속
 에 귀착시키면서 그는 자연의 두가지 원리를 생산하였습니다.
 어두움이 변화되어서 하늘과 땅이 나뉘었습니다. 해와 달이
 공전하여서 낮과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물이 형성된 후에
 그때 그는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였으며 그에게 모든것보다 뛰
 어나는 가장 특수한 권리를 주셨으며 또한 그에게 창조된것
 모두를 통치하는 권을 주셨습니다." (타락에 관하여) "인간
 의 기본적인 성품은 순수하였으며, 자기분위가 아니며, 오점이
 없었으며, 거만스럽지 않았을바라. 그의 마음은 괴욕이나 격정
 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탄이 그의 악한 악덕을
 그에게 주입시키었던지 인간의 순수하고 곧은 성품을 악화시켰
 습니다. 한편에는 완전한 선의 달성과 다른 한편에는 악에서
 전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그를 다 한모양으로 불가능도 보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이 결과로 바쁜 연속 가운데
 365가지 형태의 날이 생겼으며 발가는 일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적인 대상물을 지적하여서 그들이 경배하는
 올바른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존재의
 실재를 부정하였으며 그들 자신의 선함에 대해 자만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인간의 지성과 사상은 희망없는 혼돈속으로 타락되었
 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과 관심은 끊임없이 애쓰고 고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애씀은 모두가 헛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눈이 멀게 하여서 끝없는 흑암으로 빠졌으며, 그들이
 타락하고 방황하는 동안에 그들의 길을 잃어버렸고, 또다시
 고향에도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것) 이리하여 우리의 삼위일체이시며 Messiah
 (구주)이신 분은 이 우주의 찬란한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그의 참된 주권을 감추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들은 복음을 부르짖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Ta-Ch' in 에서 거룩하신 분을 낳으셨습니다. 한
 밝은 별이 축복받은 이일을 알려 주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
 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보았으며 그래서 그들의 선물을 가지고
 앞으로 왔습니다.

(구원에 관한것) 24현인에 의하여 반포되어졌던 것처럼 구약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메시아는 그자신의 위대한 계획에 의하여
 가족과 왕국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그의 교훈을 어둡히는 것은 성령
 즉 삼위일체의 신께서 소외없이 이루어십니다. 그는 올바른 신앙
 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속에 선함을 위하여 의향을 신이 주셨습니다.

어둠까지의 기본적인 덕의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분은 인간의 성품속에 주함을 없이 하시고 참된 성품을 심어주셨습니다. Three Constant Gates를 폭넓게 개방하기 위하여서 그는 밝은 생을 주시고 죽음을 없이 하셨습니다. 밝은 태양을 간직하기 위하여서 어두움속의 삶을 일조하셨습니다. 또한 악행을 유도하는 모든 사악을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자비로움의 대해속에서 노를 저으며 광명의 궁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리하여 합법적인 모든 존재들은 해안을 건너서 옮겨졌습니다. 그의 권능의 역사하심은 존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정오에 그의 기본위치에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에서), 그의 성서(말씀)의 스폴일곱 가지의 표준적인 역사하심이 보존되어졌습니다. 위대한 회심의 수단이 폭넓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축복받은 인생의 만페된 분은 개봉되어졌습니다. 그의 율법은 불과 성으로 세례를 받고 (Baptism) 모든 헛된 기만에서 깨끗함을 입고 인간이 순수화 하였으며 그때에 그들은 그들의 본성의 밝음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의 선교) 표식으로서 그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들은 어디든지 햇빛속을 여행하였으며 타지방 사람들을 재통합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i.e. 잃어 버렸던자들) 나무를 치면서 그들은 사랑과 자비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형식을 갖추어서 동방으로 돌아다녔으며, 인생과 영광의 좁은 길목에서 서둘렀으며, 한편 그들 스스로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왕관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개인적인 이기적 욕망은 갖지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남자나 여자이든 종의 제도가 없게 되었습니다.

위의 짧은 인용문으로 Legge 교수가 얼마나 예리한 비판을 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기본적인 요소가 위의 인용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삼위일체, 창조, 타락, 그리스도의 임하심, 그리고 그의 구원의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것 같이 네스토리아교의 교리는 내용이 없으며 이교들의 교리개념이 혼합되었습니다. 죄값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의 능력안에서의 부활은 간접적인 것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네스토리아교는 동방의 옛날 종교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교훈"은 도교이며 "여덟가지 기본적인 덕행"은 불교이며 또한 "자비로움의 대해를 저는 노"도 불교의 사상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의 혼합, 이것이 군대와 정치적인 지반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불교도가 박해받았으며, 제국이 붕괴되고, 가정과의 접촉점이 잘리어졌으며 교회자체의 신학이 허약했기 때문에 비기독교종교에 부합되었습니다. 이 모든것은 위에서도 인용한 믿을만한 중국기록입니다. 987년에 중국에는 단지 하나의 종교 즉 기독교만이 남아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중국에 왔습니다. 북단에 있는 Kereits를 통하여 왔습니다. 또한 몽골 (Mongols) (1206-1368) 왕조를 통하여 전교되었습니다.

여덟가지의 기본적인 덕의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분은 인간의 성품속에 추함을 없애시고 참된 성품을 심어주셨습니다. Three Constant Gates를 폭넓게 개방하기 위하여서 그는 밝은 생을 주시고 죽음을 없애 하셨습니다. 밝은 태양을 간직하기 위하여서 어두움속의 삶을 일소하셨습니다. 또한 악행을 유도하는 모든 사악을 없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자비로움의 대해속에서 노를 저으며 광명의 궁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리하여 합법적인 모든 존재들은 해안을 건너서 옮겨졌습니다. 그의 권능의 역사학식은 존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정오에 그의 기본위치에 돌아왔습니다. (하늘에서), 그의 성서 (말씀) 의 스물일곱 가지의 표준적인 역사학식이 보존되어졌습니다. 위대한 회심의 수단이 폭넓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축복받은 인생의 밀폐된 문은 개방되어졌습니다. 그의 율법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Baptism) 모든 헛된 기반에서 깨끗함을 입고 인간이 순수화 하였으며 그때에 그들은 그들의 본성의 밝음을 다시 회복하였습니다. (그의 선교) 표식으로서는 그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들은 어디든지 햇빛속을 여행하였으며 타지방 사람들을 재통합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i.e. 잃어 버렸던자들) 나무를 치면서 그들은 사랑과 자비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형식을 갖추어서 동방으로 돌아다녔으며, 인생과 영광의 좁은 길목에서 서둘렀으며, 한편 그들 스스로를 깨우치기 위하여서 왕관을 들고 다녔습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개인적인 이기적 욕망은 갖지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남자나 여자이든 종의 제도가 없게 되었습니다.

위의 짧은 인용문으로 Legge 교수가 얼마나 예리한 비판을 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기본적인 요소가 위의 인용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삼위일체, 창조, 타락, 그리스도의 임하심, 그리고 그의 구원의 역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것 같이 네스토리아교의 교리는 내용이 없으며 이교들의 교리개념이 혼합되었습니다. 죄값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고 그의 능력안에서의 부활은 간접적인 것만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네스토리아교는 동방의 옛날 종교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교훈"은 도교이며 "여덟가지 기본적인 덕행"은 불교이며 또한 "자비로움의 대해를 젓는 노"도 불교의 사상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의 혼합, 이것이 군대와 정치적인 지반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불교도가 박해받았으며, 제국이 붕괴되고, 가정과의 접촉점이 잘리어졌으며 교회자체의 신학이 허약했기 때문에 비기독교종교에 부합되었습니다. 이 모든것은 위에서도 인용한 믿음만한 중국기독교입니다. 987년에 중국에는 단지 하나의 종교 즉 기독교만이 남아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중국에 왔습니다. 북단에 있는 Keraits를 통하여 왔습니다. 또한 몽골 (Mongols) (1206-1368) 왕조를 통하여 전교되었습니다.

1200-1600 AD

IV. RECOVERY IN ASIA AND EXPANSION FROM THE WEST. (1200-1600 A.D.)A. 몽고에서의 경교의 재현과 쇠퇴 (A.D. 1,000-1405)

10세기 거대한 당왕조 말기에 중국에서 기독교가 자취를 감추는 것은 아시아적 기독교가 다시 재현하지 못할 만큼의 결정적인 타격은 되지 못하였다. 당시 중앙아시아에서 동부 아시아에 새로운 지배력을 가지게 될 종족 가운데 새로운 신앙의 격려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종족이 바로 몽고족을 가르켜 하는 말이다.

11세기초에 네스토리안 선교사들은 중앙아시아의 터키족인 Kerait's 족을 개종시키기 시작하였고 이들을 통하여 멀리 동북쪽에 있는 몽고족에게 까지 전도할 수 있게 되었다. (몽고족과 터키족은 종족적으로도 같은 부류에 속하나 언어학적 차이에서만이 구별된다)

A.D. 약 1000년경에 Kerait's 족의 한 왕자가 기독교의 세례를 받았다고 요청한 일이 있었으며 12-13세기에 와서는 온 종족이 다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간주된다. 이미 그때 이 Kerait's 족은 그들의 사촌격인 몽고족과 동맹을 맺게 되었으며 이런 동맹이 몽고의 대정복자 징기스칸 (1162년 출생)으로 하여금 세상이 다 아는 호전적인 황제를 낳게 하였다. 이때가 바로 몽고족이 처음으로 정치적인 존재가 되는 때였다. 이런 동맹 안에서 Kerait's 족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고 이들을 통해서 네스토리안 사상이 그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리라고 본다.

Lobanov-Rostovsky 황태자는 징기스칸의 법률들 즉 Yassak 또는 몽고족의 "10계명" 같은 것을 만들게 한 것은 네스토리안들이라고 믿는다. 예를 들면, 첫째 계명은 모든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한분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른 계명들은 간음을 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음주는 허용하고 있다. "한달에 세번만 마시도록 하라, 전혀 마지시 않은 것 보다는 낡을 것이다. 그러나 아주 금주할 수 있는 자는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기록하므로, 만일 13세기 로마 가톨릭 선교사들의 비판적인 보고가 치우친 것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아마 비 네스토리안적이 아닌 금주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된다.

(참조. A. 호바노브, 토스토브스키 황태자, Russian & Asia. N.Y. Macmillan 1933. p. 17)

몽고 궁정에 끼친 Kerait's 족의 영향의 일면은 왕족들과의 결혼에 까지 이른다. 몽고의 지배자로서 그의 자리를 강화한 징기스칸은 그의 아들 중의 하나인 Tuli 들 크리스찬인 Kerait 공주와 결혼시켰다. 그녀는 세 사람의 칸과 Hulagu 칸의 어머니가 되었다. (W.W. Rockhill, The Journey of William of Rubruck to the Eastern Parts, 1253-55..., Lord. Hakluyt Soc. 1900, n.p. and G.H. Moule, Christians in China Before 1550 A.D., p.).

초기 프란시스칸 선교사들의 중국에 대한 기행문헌 네스토리아니 몽고 궁정에 끼친 영향에 충분한 증거들을 제시한다. 1246년 Pian de Carpini 의 요한이 로마 교황의 친서를 가지고 Kuyuk 칸 (징기스칸의 아들 Ogodai 의 아들) 황제를 만났을 때 그는 Kuyuk 황제가 곧 크리스찬이 될것을 확신하고 있는 크리스찬이 될것을 확신하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둘러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비서는 네스토리아니였고, 네스토리아니 교회는 궁정 바로 앞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정한시간이면 찬미소리와 징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곤 하였다. (W.W. Rockhill, op. cit. p. 29)

몇년후 1253년에 두번째 로마 캐톨릭 사절단 두복의 William 의 Karakorum 에 있는 몽고의 궁정을 찾아갔을 때 Tuli 의 아들 Mangu 칸이 황제도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징기스칸이 그의 아들 Tuli 에게 결혼하게한 Kerait 공주 Soyorghactanibagi 였다. Rubruck 는 수도 Karakorum 에 12개의 이방 종교의 사원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중 둘은 모하멜 회당이었고 하나는 네스토리아니 교회였다. (Rockhill, op. cit. p. 221) Mangu 황제가 어느 알미니안 감독에게 실제로 세례를 받았다는 주장은 알미니안왕 Heythum 1세가 몽고 궁정을 방문한 1253년으로 축정한 Haithon 의 주장으로 Rockhill 에 의해 논쟁이 된다. Rubruck가 Mangu 대칸과의 접촉에서 보면 궁정에서 마니교와 모슬렘교, 네스토리아니과 로마 캐톨릭을 대표하는 Rubruck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토론에서 대제는 오토지 주의 깊게 듣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개종에 대한 아무런 싸인도 보여주지 않았다. 사실 후에 그는 Rubruck 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은 자기 나름의 신앙을 갖게되었다. "우리는 한분만인 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다른 손가락을 주신것 같이 인간들에게 여러 갈래의 길을 주셨다." 그의 신앙은 거의가 샤마니즘에 근거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그는 우리에게 점장이를 주셨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대로 한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롭게 산다." (Rockhill, op. cit. pp. 230ff., esp. 235, 236)

A.D. 1251-1294년 까지 3형제의 통치가 (Mangu, Hulagu, Khublai) Yuan 왕조에서 가장 네스토리아니즘이 고조된 때라고 본다. 그리고 두부라이 치하에서는 중국으로 다시 네스토리아니즘이 들어가기도 했다.

다음 차트는 당시 역사의 중심인물들의 표시다.

1. Jenghiz Khan (1227년 사망)

2. Ogodai (1229-1241년까지 통치) Tuli (1232년 사망)

3. Kuyuk (1246-1248)

4. Mangu (1251-59) Hulagu (1261-65) 5. Kublai (1260-94)

Abaka (1265-82) Ahmed (1282-84) Jenghiz

Argun (1284-91) 6. Timur (1294-1306)

Six Emperors

13. Toghon-Timur (1333-68)

Keraits 족만이 몽고에서 네스토리안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 족속은 아니었다. 몽고족중에서 세 종족이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다. 이미 언급한것 같이 Keraits 족은 징기스, 오고다이, 만구 조정에서 고관의 자리를 차지했으며, 역대 Khan들과의 혼인관계를 누렸다. Onguts 족도 기독교인들과 광범위한 연관성을 지닌 또 하나의 종족이었다. 이 종족은 중국과 몽고사이의 요지를 관할하고 있었다는데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세째 종족은 터키의 Uighurs 족으로서 당황조 이후 가장 많은 숫자가 네스토리안으로 개종된 군사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270년대에 송나라가 망하자 쿠비라이는 중국의 황제가 되어 수도를 몽고의 카라콥에서 북경 (Cambaluc)으로 옮겼다. 이와 함께 네스토리안은 중국으로 되돌아가서 수도에다 대감독을 다시 두게 되었으며, 쿠비라이 치하의 중국 네스토리안은 국제적으로 절정기에 달하였는데, 처음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상호교류의 선교사업을 하게 되었다.

1275년 (A.D.)경 Uigher 부감독의 아들인 Mark (1245년생) 그의 친구 Rabban Sauma 라는 네스토리안이 북경을 떠나 예루살렘 순례여행을 떠났다. 도중에 머물러 총주교 관할 구역인 박다드에 들면서 옛 신교가 있었던 Arbela 와 Nisibis성지를 방문했다. 정치적인 사정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주교가 Mark 에게 돌아갈 것을 권유하고 그에게 중국 대주교의 지위를 제공하였지만 중국으로 돌아가기는 커녕 필시아에 머물기도 결정하였다. 결국 마크는 승락하고 1280년에 35세의

나이토 대주교에 편신을 하였다. 그러나 "짐고 미남의 보족
 못수업"의 고위 성직자는 다시는 그의 고향 땅을 볼 수 없게
 되었다. 2년 이상이나 그는 아시아로 가는 길을 넘으려 하였
 으나 여러 차례의 전쟁이 그의 갈길을 차단시킨 셈이었다. 그러
 는 몽안에 그곳 네스토리안 교회의 총주교가 사망하자 기대에
 없었던 중국에서 온 이 나그네를 그의 후계자로 최고 공회가 선
 택하였다. 그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시리어를 할 줄 모릅니다."
 (교회의 통용어)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토마 치하에서 성공적
 으로 살아나온 네스토리안들은 현명했다. 펠시아와 아랍 정복자
 들은 13세기에 세계의 지배자는 몽고족이란 것을 알았고 이런
 정치적 이유 때문에 몽고족 총주교를 세우도록 결정하였다.

그들의 지혜는 곧 나타났다. 1257년 동방의 통치자 쿠비
 라이는 서방의 통치자 Illhan Argun의 조언을 받아들여
 총주교의 중국인 친구요, 동요인 라반 사우마 감독을 몽고의
 대표로 토마와 파리에 외교사절을 보내었다. 다시 한번 네스토
 리안 교회의 별이 높이 올라갔으니 동방에서 간 감독이 불란서의
 필립공과 영국의 에드워드 1세와 같은 서방의 여러 왕들의 권위
 와 접하였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기독교회의 안정과 세력이 명확하게 그
 자리를 굳힌것은 아니었다. 몽고제국에서 부흥을 이트켜 보려던
 그들의 희망은 고정되었고 더 이상 정치적인 호감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펠시아와 시리아에서의 서방 칸들과의 관련이 단절되는 직접
 적인 결과는 네스토리안 세력의 일시적인 침체상을 주었다. 1291
 년에 사망한 Arghun 치하에서, 그의 뒤를 이은 두형제 Kaikhata
 (1291-95) 와 Baidu (1295) 치하에서의 몽고인 총주교의 지위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다. 정부는 거대한 네스토리안 교회 건물을
 지어 주었는데 특히 바다드시내와 그 번두리에다 지어 주었다.
 그러나 칸들 중에는 한 사람도 개종을 하거나 세례를 받지 않았다.
 Baidu가 즉위한후 곧 죽어버리자 Kaikhata's의 아들 Ghazan 이
 후계자가 되었는데 그는 열렬한 모슬렘교도였다.

펠시아에서 네스토리안들의 전망은 신속한 범화를 입었다.
 교회는 모슬렘교도들도 파괴되었다. 그러나 몽고인인 총주교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불잡혀 매달렸다. 입에는 재가 묻은
 수건으로, 머리는 떨어 뜨린채 거의 질식사상태에 있었으나 거의
 죽음 직전에서 도망쳐 나왔다. 혹독한 박해는 여러해 동안 계속
 되었다. 어느 크리스찬 왕후의 우정으로 말미암아 그는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 그런중에서도 교회가 재건되면 모슬렘들은
 재빨리 파괴를 다시하였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막중한 과세
 를 부담시켰다. 몽고인 총주교 마르는 말 안바라 3세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고도의 정치적 성공의 기대를 받으면서 1281년 11월 2일에 바다 근처 말 코카에서 재관된 사람으로 A.D. 1317년 박해가 한창 퍼져날 누렵에 사망하였다. 그러므로 네스토리안들은 다시는 힘을 얻을 수 없었다. (참조 Xian in China before 1550 A.D. pp. 94-127)

필시아에서 일어난 일칸스의 마지막 박해로 인하여, 북경에서는 칸대제들도 관용을 누린 네스토리안들은 쇠퇴해가고 있는 몽고 제국에서 더 지탱할 수가 없었다. 필시아에서의 몽고의 통치는 1335년 이후엔 사라지게 되었고 모슬렘이 다시 한번 근동 지방을 석권하였다.

중국에 있어서는, A.D. 1330년경 기록엔 Cathay 에는 네스토리안들이 3천명 이상이 있었다는 언급이 있으나 1368년에 송리틀 거둔 명왕조에 몽고제국이 망하자 그들과 함께 망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때 북경은 거의가 파괴되었고 대량학살을 당했으며 몽고족과 관련이된 모든 것들은 뿌리를 뽑혔다.

"몽고족과 함께 외국인인 피보호자들도 자취를 감추었다." 고 Michael Prawdin 이 그의 저서 몽고제국에서 밝혔다.

"기독교인들의 정착지나 모하멜의 식민지는 파괴되었다. 감독들도 소멸되었고 승려들은 피살되었으며 묘지에 있는 비석까지 거둬치웠다." (M. Prawdin, The Mongol Empire: Its Rise and Legacy, London, Allen & Unwin 1940, p. 388).

윗 문장의 주된 단어는 아마도 "외국인" 이라는데 있다고 본다. 중국에서는 7백년 후에도 네스토리안은, 첫번 째로는 시리아인들속에, 그다음은 커라일인들 속에, 그리고 위굴스와 몽고인들속에서 외국인으로 존재했었지 중국인이 아니었다. 중국사람을 그리스도에게도 어필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흔적하나 없이 소멸이 되고 말았다.

투부둑의 윌리엄이 13세기 Khans 왕조에서 어째서 개종자들을 업지 못했는가에 대해 우울한 묘사를 준다. 토마 캐도릭 입장에서 그는 네스토리안의 약점을 든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입장에 따라보면 과연 몽고인 네스토리아니즘이 참된 기독교도들이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는 1254년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Cathay 에 있는 15개 도시에 네스토리안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에서나 경전사용에서 전적으로 시리아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시리아어를 전혀 못하는 편임) 무식한 승려와 같이 노래를 부트듯이 하였다. 이런식으로 그들은 완전히 부패하게 되었다. 먼저 그들은 고리대금업자가 되었고 알콜중독자가 되었다. 그리고 탈라스인과 함께 살아오고 있던 사람들중에 더러는 그들처럼 여러사람의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이 교회에 갈 때는 마치 사라센 사람들처럼 손과 발을 씻었다. 금요일에도 고기를 먹었다. 감독이 그곳을 방문 하기는 하지만 15년만에 한번 올까 말까였다. 그들은 그들의 사내 아이들에게는 심지어 요람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까지 제사장이 되었으면 했다. 그리하여 남자들은 거의가 제사장이 되었고 그후에 결혼까지 하였다. 이런일은 분명히 신부가 될때 한 신서와는 상반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중 결혼을 하였다. 심지어 신부의 첫번째 아내가 죽으면 부인을 또 얻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성직을 매매하였고 돈을 받지 않고는 성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처자에 빠져서는 복음을 전파하지도 않고 거뒀을터 애쓰는 편이었다. 그리하여 그들 모두가 몽고 귀족의 아들이 되는 때가 오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과 신앙을 가르친다 할찌라도 그들의 사악한 생활과 죄악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과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었다. 오히려 일반 몽고인의 삶이 제사장인 그들의 삶보다 더 순결하였다.

그러므로 몽고와 함께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살아남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가 불교도도 변하였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그렇게 되었으리라 본다. 필시이나 중앙 아시아의 몽고인은 모슬렘이 되었다. 몽고의 마지막 정복자 티무르는 (1336-1405 A.D.) 수도 사말칸드를 떠나 온 중앙 아시아와 필시아에 까지 다니며 네소리안들을 죽였다. 오직 높은 산, 깊은 산속에 숨어 있었던 몇몇 사람들만이 살아 남았는데, 풀디스탄 (시리아) 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오늘 까지 존재해 있다.

B. Beginnings of Roman Catholic Missions in Asia.

Bibliography (for Mongol Period)

The Journey of William of Rubruck to the Eastern Parts, 1253-55, as narrated by himself, with two accounts of the Earlier Journey of John of Pian de Carpine, tr. and ed. by W.W. Rockhill, London, 1900. (Hakluyt Soc.)

Henry Yule, Cathay and the Way Thither, Being a Collection of Mediaeval Notices of China. New ed. by Henri Cordier. 4 vols. London 1913-16)

K.S.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s in China. N.Y. 1929

K.S. Latourette. The Thousand Years of Uncertainty, A.D. 500-1500. vol. 2 in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N.Y. 1938

1. Roman Catholic Christianity under the Mongols (1260-1368).

About the middle of the 12th century ^{startling} electrifying reports began to filter into Europe from Asia--reports about a mysterious Christian king beyond the falling empire of the Arabs and the rising power of the fearful Turks. Otto of Freising, the greatest historian of the Middle Ages and no credulous believer in wonderful tales (he rejected the Donation of Constantine as a forgery, for example), records in his Chronicon (vii, 33) the report of a Syrian bishop visiting Italy in 1145 that "a certain John, who lives beyond Persia and Armenia in the extremum Orient, a king and a priest and a Christian with his whole nation, though a Nestorian" had defeated the king of Persia, burned his capital (Ecbatana) and had been stopped from advancing on Jerusalem only by the broad, uncrossable waters of the Tigris River (quoted in Yule-Cordier, Cathay, vol. 3, p. 16, from Germanic. Historic. Illustr. etc. Christiani Urstisii Basiliensis, 1505).

This was electrifying news to 12th century Catholic Europe. The Second Crusade (1144-48) was going badly and would end in complete disaster. Jerusalem which had been won and held by the Crusaders at such great cost would fall back to Saladin and his Moslems in 1187. Richard the Lion-hearted of England, Frederick Barbarossa of Germany and Philip Augustus of France would try and fail to recapture it in the most ambitious crusade of all, the Third (1189-92). Yet here from the other end of the world came persistent reports that a king, called Prester John, at the head of Christian armies from Asia was accomplishing what the greatest knights and kings of Western Christendom had so tragically failed to do--defeat the Saracens.

Discouraged western Christians eagerly believed and spread

